

금주의 기도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과 위기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신앙을 잃지 않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로 가운데서 능히 견져내시게고 왕의 손에서도 견져 내시리이다
다니엘서 3장 17절

시리아 쿠르드크리스천 멸절위기

CT, IS와 싸운 쿠르드족 토사구팽에 피난 불가피...기도요청 보도

서방을 대신해 IS 격퇴전장을 누비던 이들에게 독립국과 자치권이라는 열매 대신 주변 열강의 역공이라는 냉엄한 현실만이 돌아오게 됐다. 시리아에서 미군의 지상군 역할을 했던 쿠르드족이 미군이 떠난 뒤 터키의 공격을 받으며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쿠르드족은 독립 국가를 갖지 못한 세계 최대 민족이다. 주로 터키 남동부, 시리아 북동부, 이라크 북부, 이란 남서부, 아르메니아 남서부 등 5곳에 흩어져 살고 있고 전체 수는 3천만~4천만 정도로 추산된다.
쿠르드족은 20세기 초 '쿠르디스탄'이라는 독립국을 세우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과 동맹국이 서명한 세브르 조약에는 쿠르드족의 독립국 건설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3년 뒤 서방 국가들은 이 약속을 내팽개쳤다. 당시 쿠르드족은 독립국 건설 약속을 믿고 서방 국가들과 함께 싸웠으나 전쟁 후 '토사구팽'을 당하고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됐다.
쿠르드족의 절반 정도인 1천500만명은 터키 동남부에 거주하고 있다. 터키 인구의 19% 정도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수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시리아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다. 시리아 내전과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박해가 지속되는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시리아 인구 중 4.6%다.
또한 쿠르드족 교회(4만에서 5만명으로 추정)에서 같은 시련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쿠르드족 교회는 아직 신생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신학교나 정식으로 안수 받은 목회자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쿠르드족은 이슬람을 알고 아랍어에도 능통해 향후 중동 선교의 촉매 자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1만여명의 쿠르드족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터키의 침공과 해당 지역 장악으로 시리아와 쿠르드 크리스천들이 다시 한번 멸절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지구촌 크리스천들의 중보기도가 간절하게 요청된다(Syrian Christians to US: 'Don't Abandon Us Now': After surviving a civil war and ISIS attacks, the Christian minority fears a Turkish takeover in Kurdish border region, Christians Killed on Syria's Front Lines: While Trump defends US withdrawal, advocates fear "Turkey will complete the work that ISIS tried to do, in eradicating Christians from this region").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수한 뒤 쿠르드족이 터키군의 공격을 받았다. 아울러 쿠르드 기독교인들도 위기에 처해있다. 여성수비대(YPJ)도 전장에서 용맹을 떨쳤다. 과연 12세기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의

미국이 시리아 내 쿠르드를 지원한 것은 IS격퇴전 뿐 아니라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미국이 시리아 내전을 두고 언급하는 '온건 반군'은 통상 쿠르드군을 뜻한다.
쿠르드족이 시리아 북부를 지켜냄으로써 터키를 향한 IS의 복진이 저지된 덕을 본 터키는 이 전공을 발판으로 자국 내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이 활발해질 것을 우려해 군사 작전을 강행했다.
터키는 자국 내 쿠르드족 무장정파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이 YPG와 연결됐다고 주장한다. PKK는 터키와 미국, 유럽연합(EU)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조직이다.
(3면으로 계속)



지구촌 비상사태에 대대적 공략 BBC, 기후변화대책 촉구위해 시위 벌이는 '멸종저항' 소개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XR)은 "권력의 중심부를 평화적으로 장악하고 폐쇄하겠다"며 런던과 암스테르담, 베를린, 뉴욕, 시드니 등 세계 곳곳에서 시위를 펼쳤다. 그렇다면 멸종저항은 어떤 단체이고, 이들은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What is Extinction Rebellion and what does it want?)

'멸종저항'이란? 의 상징은 모래시계가 원안에 있는 것인데, 이는 멸종 위기종을 구할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뜻한다.
'멸종저항'은 각국 정부의 공식적인 '기후적·생태학적 비상사태' 선언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비폭력시민 불복종 환경운동가(non-violent civil disobedience activist movement)'로 칭하고 있다.
2018년 출범한 '멸종저항'은 전 세계 수십 개 도시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나라에 지지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면으로 계속)

 시론 김한완 목사	 3면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인터뷰 가진수 교수	 16면
---	---	--	--

ATS와 ABHE 정회원
최고의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213) 388-1000 | 1500 Shatto Pl., LA, CA 9002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북스톡 / 성경 / 생애 역사 / 기쁜 / 교재음악 / 영성서적 / 영성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0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linnwood Terrace, Newark, NJ 07102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식물역사, 생가복합 주문 제작, 탁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330-8080 | bibvestoro@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 석사과정 개설

M.A. in Worship Studies

-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예배의 패러다임 정립
-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의 전문화와 세속적인 문화에 맞선 깊은 영적 예배 추구
- 시대에 맞는 다양한 예배를 시도할 수 있는 예배 지도력과 콘텐츠 개발
- 글로벌 시대에 미래를 선도할 예배 모델 연구

특징

- 한국어로 개설되는 최초의 예배학 석사과정
- 48학점 (2년 과정)
- 캠퍼스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 사역자, 유학생 장학 혜택

강사진

 Tommy Walker	 Greg Scheer	 Tom Kraeuter	 Edwin Willington	 가진수 목사	 정종원 목사	 김섭리 목사
--	--	---	---	---	---	---

예배 찬양 특별 세미나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10월 26일 (토) | 9AM-4PM
베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주최: 글로벌위십미니스트리(Global Worship Ministry)
주관: 베델교회 | 후원: 월드미션대학교
대상: 목회자, 교회 리더, 예배인도자, 찬양인도자, 보컬, 악기 연주자, 예배자
등록: 선착순 150 | 등록비: \$ 80 (강의안, 식사제공) | 문의: 714) 337-4532



● 발행인 칼럼 ●

Light on!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13, 12, 11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다. 며칠 전 장례식 접례를 위해 가는 길에 내 차 앞의 빨간 신호등을 보고 차가 멈춰 서 있었다. 차 안에 앉아서 잠시 왼편을 보니 보행자 신호등의 숫자가 그렇게 줄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곧 그 숫자가 0으로 내려가고 신호등이 바뀌면 서둘러 얼마 남지 않은 장례식장으로 가면 되는 것이었다. 왼편에 보이는 보행자 신호등의 숫자가 더 줄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신호등 앞에서 누

군가 내 차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시간도 없어 그냥 지나쳐도 되겠지만 황급히 차문을 내려 보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외침이 분명히 들렸다. "Light on!" 내 차의 light가 꺼져 있음을 보고 그 사람이 light를 켜라고 외친 것이다. 그리고 보니 그동안 자동차의 light가 꺼진 줄도 모르고 달려왔고 또 그렇게 달릴 뻔하였던 것이다. 밤중에 달리는 차에 light가 꺼져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사람의 외침을 알아들은 순간 앞의 신호등은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내 차는 꺼졌던 light를 켜고 달려 장례식장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

빛이 없는 세상을 경험해 보았는가. Black out, 필자가 사는 뉴욕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대규모 정전(停電) 사태가 몇 번 있었다. 빛이 사라지면서 무법(無法)은 기승(氣勝)을 떨었다고 도시의 역사(歷史)는 말해주고 있고, 그럴 때 겪은 혼돈(混沌)을 직접 말하는 자도 있다. Black out 때는 모든 도로의 신호등도 작동하지 않아 차들과 사람이 뒤엉킨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청년 때 서울의 큰 네거리에서 차들과 사람이 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엉켜 있는 것을 보았다. 신호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상황을 통제할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 네거리 가운데로 달려 나갔다. 손으로 차들을 멈추기도 하였고 가라고 사인(sign)을 주기도 하였다. 누군가가 내게로 달려와 호루라기를 건네주었다. 교통정리를 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혼돈은 사라졌고 걸어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 안의 사람들이 나의 기이(奇異) 행동에 적잖이 놀라했다. 얼마 후에 도착한 경찰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때 "어린이 교통대"에서 경찰 아저씨들로부터 교통정리 하는 법을 배웠고 청라리 어느 네거리에서 실습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훗날 그렇게 사용될 줄 몰랐던 초등학교 때의 훈련이었다. 아무튼 나는 잠시 혼돈의 거리에서 빛이 되었다.

일정량의 기름을 시(市)로부터 공급받아 등을 밝히던 등대가 있었다. 그 등대의 등대지기는 마음이 여러 사람이었다. 등대의 기름을 조금씩 빼어 팔아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곤 하였다. 그런 일은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등대의 남은 기름으로 칠할 같은 밤바다를 아침이 될 때까지 잘 비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많은 어부를 태운 배가 풍량이 심한 밤바다에서 이리저리 출렁이었는데 등대의 빛을 볼 수 없었고 항구를 찾지 못하다가 암초까지 만나 좌초되어 모두 죽게 되었다. 밤바다에 불이 꺼져 있는 등대는 더 이상 등대가 아니다. 등대지기가 아무리 이런저런 일을 살피더라도 등대를 밝히는 일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이다.

교회는 산 위의 동네이다. 그냥 산 위의 동네는 아니다. 세상을 위한 빛을 밝히는 산 위의 동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교회에 빛이 꺼져 있다면 그 교회는 좌충우돌(左衝右突) 하면서 자신도 어려움에 빠지고 세상도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Light on!" 불을 켜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13, 12, 11... 곧 0이 되기 전에 다시 불을 켜야 한다. 그 때, 불이 켜져 있는가?

자녀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배운다!

CT, 크리스천가정 블로그에 소개된 자녀양육과정 중 신앙다지는 2편 글 소개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감동을 담백하게 서로 나누는 블로그가 있다. 바로 에미 줄리아 베커가 '크리스천티투데이'(CT)에서 운영하는 블로그(THIN PLACES)이다. 그녀는 이 공간을 통해 신앙, 가정 그리고 장애를 겪는 자녀를 둔 크리스천 엄마, 아빠들의 진솔한 고백들을 나눈다.

아이들과 악의 문제에 대해 대화할 때

(Talking with Kids about the Problem of Evil, A Small Talk guest post by Jennifer Grant)

첫째 아들은 항상 내 말을 잘 따랐다. 아이가 야장야장 걸을 무렵 내가 아들에게 "우린" 다른 친구를 밀거나, 공을 잡으러 차도에 뛰어들거나, 뜨거운 레인지 위를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할 때, 아이는 큰 녹색색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아이는 이러한 작은 죄들을 멀리했다.

세 살 어린 동생은 다른 아이를 밀치거나, 뜨거운 전구나 버너를 만져서 손을 데이거나, 식료품점에 세워놓은 진열품들을 쓰러뜨리면 안 된다는 내 훈계를 큰 아이보다 더 마음에 새기는 것 같았다. 이 아이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타고난 아이이다.

내 아이 모두 어렸을 때, 아이들은 기독교와 관련하여 "개와 고양이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어요?"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와 아들은 누구랑 결혼했어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는 질문을 자주 했다. 이런 질문들과 다른 궁금증들에 대해 대답해주면서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어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왜요?" "어떻게요?" "말도 안돼요!" 라고 쏟아낼 때, 큰 아이는 자주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물론 수 년 동안 아이들의 질문은 하나님은 밤에 잠을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천국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같은 영똥한 질문들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겨

한인 크리스천 가정들 역시 아이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배운다"는 주제로 2편의 글을 골라 소개해, 과연 우리 가정에서는 어떠한 감정들이 오고가고 있으며 아이들과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알려 주고 있는지를 점검해본다.



번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어요?" 같은, 점점 더 복잡한 질문들로 돌아왔다.

나는 이런 질문들이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얼마나 까다로운 질문인지 절감하면서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나는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이 아이들 각자를 어떻게 돌보셨고 또 아이들 각자에게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를 설명했다.

아이들은 여러 번 내가 마카로니 앤 치즈를 만들기 위해 물을 끓이고, 서류를 구겨지지 않게 가방에 넣고, 개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고, 한 아이의 신발 끈을 묶어주면서 다른 아이들이 손을 씻는 것을 확인하는 등, 대여섯 가지의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을 때 영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 불완전하거나 성급하거나 산만할 수밖에 없을 때, 나는 아이들의 신앙의 여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이 교회의 다른 믿는 가족들과 영적인 교제를

지속하도록 했다. 하지만 결국, 아이들 각자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다.

큰 아들이 대학 입학으로 집을 떠나기 몇 주 전 큰 아들과 나는 뉴욕시에 있는 '킹 트럼펫 버섯'과 '설탕에 졸인 회향 잎을 곁들인 아귀 요리' 메뉴 같은, 거창한 풍미를 자랑하는 식당에서 외식을 했다.

나는 향수에 휩싸였다. 유치원을 다닐 동안 내내 구운 치즈 샌드위치와 마카로니 앤 치즈를 즐겨 먹었던 아들은 지금 숯불에 태운 방울 양배추와 밀알을 아주 행복하게 먹고 있었다. 아들은 지금 법적으로 성인이고, 대학생 활을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즉각적으로든 영속적으로든 아들은 어떻게 변화될까? 또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까? 우리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아들이 믿음을 계속 지킬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서 몇 차례 그랬듯이 신앙을 잠시 한쪽에 밀어둘까?

엄마로서 아들이 다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던 이후로 여러 해가 지났다. 사춘기의 아들은 더 이상 영적이거나 지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엄마를 의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은 지금까지 함께 집에 있었고, 언제나 자기에게 감동을 주거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에 대해 얘기할 준비가 되었다. 아들은 곧 집을 떠날 것이고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은 내 시야를 벗어날 것이다. 아들의 믿음이 온전히 아들만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하는 시간이 왔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도 하면서 식당 야외 테이블에 몇 시간이고 앉아있었다. 그 시간은 내 마음속에서 "집중해. 지금, 지금 이 순간은 네가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할 시간이야"라고 말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 나는 집중했다. 그날 저녁, 우리의 대화는 아들의 믿음과 그를 힘들게 하는 질문들로 이어져 갔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악의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불의하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극빈자로 태어나는데 반해 어떤 사람들은 안락하게 태어날까? 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동안,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그와 비슷한 이슈로 씨름했는지를 나눌 수 있었다.

결국, 나는 아들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에 상관없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할지 더 이상 아들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1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대표) (323) 965-0009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독일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북음사 562-865-4949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 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시리아 쿠르드크리스천 멸절위기

(1면에서 계속)

그러나 YPG와 PKK가 연 관했다는 정황은 의심할 수 있지만 그간 PKK의 근거지인 터키 남동부나 이라크 북부에 YPG가 병력을 보내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오히려 터키가 이번에 공격한 YPG는 IS 격퇴에 집중했다. 터키 정부는 IS 격퇴를 명분으로 YPG를 지원하는 미국에 "테러조직으로 다른 테러조직을 제거한다"라며 불만을 표하곤 했다.

터키의 군사작전이 시작되자 YPG를 지원한 미국은 등을 돌리고 말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통화 후 7일 시리아 북동부의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결정하자 사흘 뒤 터키는 공격을 개시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터키에 쿠르드족 공격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쿠르드족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돕지 않았다"라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쿠르드족이 직면한 절박한 생존에 대한 그의 단편적 인식을 드러낸다.

동맹을 배신했다는 거센 비판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을 중재하겠다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어정쩡한 해법을 내놨다.

IS 격퇴의 선봉에 선 쿠르드족이 미국에 버림받은 것은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자치정부는 자체 군사조직 페슈메르가를 앞세워 IS 소탕에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페슈메르가는 2014년 이라크 북부와 서부를 휩쓴 IS를 막아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라크 정부군이 지리멸렬한 전력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페슈메르가는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IS에 승전해 '죽음에 맞서는 자'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IS는 2014년 6월 이라크 제2도시 모술에서 국가 수립을 선언하고 수니파 지역인 중서부와 북서부를 점령하다니 유전지대 키르쿠크에 밀고 들어왔다.

이라크가 자칫 테러조직의 손에 넘어가려던 위기에 서 정부군 대신 키르쿠크를 지켜낸 이들이 페슈메르가였다.

IS의 만행에 피신한 북서부 야지디족의 안식처가 된 곳도 쿠르드자치정부였고, 2017년 말 IS를 쫓아내고 이들의 고향 신자르를 되찾은 주력군 역시 페슈메르가였다. 미국과 유럽은 페슈메르가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면서 전공을 치켜세웠다.

이라크에서 IS가 거의 소멸하던 2017년 9월말 자치지역 3개 주에서 분리·독립 찬반 투표를 했다. IS 격퇴 전을 명분으로 독립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판단한 것이다.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에 독립 국가 수립은 민족의 숙원이다.

같은 쿠르드족이지만 혹은 독립에 방해가 될까 봐 쿠르드자치정부는 시리아와 터키의 쿠르드족과 거리를 둘 정도로 조심스러웠지만 미국의 차가운 외면을 피하지 못했다.

투표 결과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라크 중앙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해 쿠르드자치정부를 압박했다.

IS 위기 국면에서 쿠르드자치정부를 지원한 미국과 유럽, 이라크 중앙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쿠르드자치정부와 원유개발계약을 맺었던 러시아마저 등을 돌렸다.

심지어 미 국방부는 이 투표에 대해 '이라크 연방제를 무시해 합법성이 없다'라고 규정했다. IS 격퇴전 뿐 아니라 1991년 걸프전, 2003년 미국의 사담 후세인 정권 전복 과정에서도 미국과 함께했던 쿠르드족은 미국을 원망했다.

서방 열강의 암묵적 지지를 등에 업은 이라크 중앙정부의 압박에 결국 쿠르드자치정부는 페슈메르가가

통제했던 키르쿠크까지 이라크 중앙정부에 내주면서 독립의 꿈을 후일로 미뤄야 했다.

쿠르드자치정부의 독립 운동을 주도한 마수드 바르자니 당시 자치 수반은 "의지할 친구는 또다시 산박에 없다"라고 말하며 사임했다.

터키는 시리아 북부 완충지대에서 쿠르드족을 쫓아내고 100만-20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재정착시키려 하고 있다.

또 터키의 공격으로 외국인 2천명을 포함해 포로로 잡혀 있는 IS 조직원 1만1천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혼란을 틈타 재무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 시리아 북부 지역을 침공한 터키 군에 의해 시리아 크리스천 3명이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CT는 보도했다.

시리아 국가회의 회장, 바삼 이사크는 NPR(National Public Radio)와의 인터뷰에서, "터키군은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이는 시리아, 쿠르드 크리스천들에게 당장 떠나라는 경고성 메시지다, 우리가 떠나야만 시리아 난민들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터키군의 이러한 만행은 분명한 인종청소, 대학살이 분명하다"고 국제사회에 도움과 지원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시론

상식이 통하는 사회



김인환 목사 (전 흥신대 총장)

현재 한국 검찰은 법무부 장관 조국씨의 아내와 그 일가에 얽힌 문제들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도된 수사의 내용을 보면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그의 아내와 아들 딸 및 동생 등등 그 일가 친족이 범법자임을 알 수 있고, 그 가정의 가장인 조국씨 역시 그들의 범법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무죄추정주의에 의해 그가 아직 무죄라 할지라도 이런 자를 공식, 특별히 수사와 관련된 지위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지휘하는 최고의 지위에 그를 앉혀 놓으면서 검찰 개혁의 책임자로 옹호하고 공공연히 검찰을 압박한다.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의 세력들은 이러한 상식적인 판단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상식을 일탈한 행위를 무조건 지지하고, 많은 국민들의 조국사퇴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면서 조국수호를 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일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을 적폐의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그들이 그렇게도 지지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의 수괴로 지목하고 그의 퇴진을 부르짖고 있다. 조국씨는 공공연하게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천명하고, 그가 사회주의자로서 가진 이상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가 과거에 발표한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논문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을 비롯한 운동권 집권세력은 모두 한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한다. 이 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반기독교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들이 집권세력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를 지지하고 추구하는가 하면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참으로 믿기지 않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식적인 판단을 거부하는 현 집권세력과 그 지지층에 환멸을 느낀 일반 대중이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이들과 맞서고 있는 현상이 현재 한국의 상황이다. 필자는 지난 10월 9일 광화문 현장에서 이들의 조국 구속, 조국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하야의 외침 속에서 이들의 상식적 판단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배신감과 허탈감, 자괴감과 분노, 한국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필자가 만난 기업가들은 한결같이 불안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상식적 판단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얼른 떠 오르는 것이 우리들의 국민성 중 객관적 규범과 그에 따른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치는 면이었다. 이의 연장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고 내가 한 일은 무조건 옳은 일이라고 우리는 우리들의 일방적 근성이 떠올랐다. 그 결과 운동권 세력으로 지칭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유독 내로남불, 조로남불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정부가 우리들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것은 그들이 과거에 부정하고 정죄하던 일들, 즉, 독재와 독식, 통제조작,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 권력집단만의 사회를 형성하는 편파성, 사회정의와 평등성과 기회균등을 부정하는 일 등등을 지금 그들은 과거 정권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행하는 교만과 고집, 위선과 이중성 및 자기모순의 모습이었다. 이들은 대중, 민중을 그렇게도 강조하면서도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맹종하는 그들의 대중과 민중만 있을 뿐 일반 보편적 대중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한국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지향점을 배척하고 자기들만의 사회주의적 가치와 지향점을 향해 부단하게 전진해가면서 국민 대중을 무시하고, 상식에 어긋나고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의해 우리나라가 붕괴되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러한 이중성과 자기모순이 있음을 새삼 성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기준과 규범으로 삼고 성령의 성화의 사역에 지속적으로 순응하면서 매일 매일 우리 자신을 항상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자신으로 만들어 가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책임을 잘 실행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나 자신과 국가와 민족을 불행하게 만들게 될 뿐임을 절감한다.

성경은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영광 된 말씀으로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된 인간상과 그 삶, 사회와 나라가 무엇임을 분명하게 지시해준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규범과 기준으로 삼고 상식적 판단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여기에 나와 우리들의 행복과 발전이 있고, 미래의 희망이 있다.

지구촌 비상사태에 대대적 공략

(1면에서 계속)

6년 안에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야심찬 목표로 보인다. 이를 달성하려면 비핵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고기와 유제품의 소비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의 식단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재생 에너지 사용의 엄청난 증가와 다른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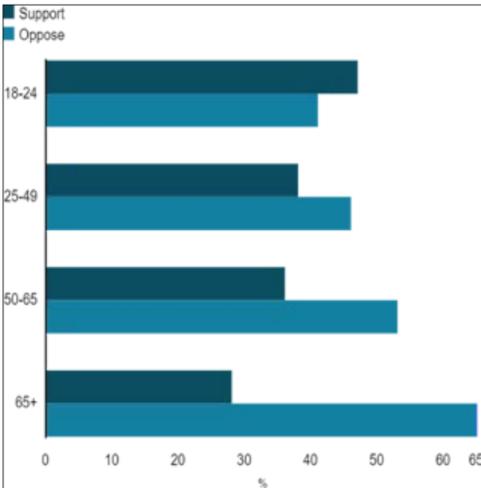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종 저항' 관계자들은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멸종저항'의 공동 설립자인 가일 브래드브룩은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 늦게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이적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해야 하는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가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로 구성된 기후변화 시민의회를 창설하고, 그 구성원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결정하는 것이 '멸종저항'의 목표다.

이들의 전략은?

멸종 저항은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11일에 걸친 시위 기간 동안 런던에서 가장 바쁜 길들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1100명이 체포되었는데 대부분 이동을 요구하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였다.



시위 참가자 중 일부는 본인들의 신체 일부분을 접착제로 기차와 런던 증권거래소에 붙였고, 어떤 시위 참가자들은 히드로 국제공항으로 행진하거나 쇠사슬로 본인들을 기물들과 묶

기도 했다. (13면으로 계속) (3면에서 계속) '멸종 저항'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400여 명의 단체 구성원들이 추가적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university campus,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and details about degree programs (ESL, Bachelor, Master, Doctoral) and contact information.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나는 중독되지 않은 성도인가?

얼마 전 오래간만에 스타벅스를 가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못 볼 것을 보게 되었다. 한쪽 팔을 잘 못 쓰는 젊은 미국 남자가 작은 사이즈의 아이스커피를 사서 설탕을 넣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스웨터로 한 개와 이퀄 한 개를 함께 뜯어서 커피에 넣었

다. 나는 그것을 보며 그분이 좀 달게 먹는다고 생각을 했다. 스웨터로는 한 개만 넣어도 대단히 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은 미소를 지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두 개를 함께 뜯어서 또 한 번을 넣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속이 좀 이상한 감을 느꼈다. 4개를 넣으

면 너무 달아서 정말 이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또다시 그렇게 넣고 또 넣고 해서 몇 번을 넣는가 세어 보게 되었는데 20번을 넣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스웨터로 20개와 이퀄 20개 합쳐서 40개를 넣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만족한 듯 웃었다. 나는 그가 그것을 마실 때 컵 밑을 보니 하얗게 아직 녹지 않은 스웨터로와 이퀄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그 남은 자리에 우유를 넣고는 휘젓는 것으로 휘저었고 맛있게 마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날 그분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고는 커피를 더 마실 수 없었다. 그분의 커피의 맛이 너무 느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분은 왜 그랬을까? 중독

되었거나 정신적으로 이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나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 한 사람은 진리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인가 중독되어서 이상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독되었다는 것은 술이 없으면 잠들지 못하고, 약물을 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돈만 생기면 도박장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도색영화를 보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드라마나 인터넷 게임에 깊게 빠져 있는 경우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당한 드라마를 한두 개 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분 전환도 되고 인포메이션도 얻기 때문

이다. 그런데 그것을 눈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도록 밤새도록 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다. 인터넷 게임도 적당히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두뇌를 원활히 움직여 치매 방지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을 만일 열일을 다 쳐놓고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런 모습이나 스웨터로와 이퀄을 40개 넣고 먹고 마시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그러므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정말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육체를 갖고 있어서 스스로 절제하기란 너무 힘들다. 아니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한 가지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령의 충만의 필요를 느끼며 그것을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한다면 못 받을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매일 같이 구하며 허투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강신용 목사

(뉴욕 사랑의동산교회)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 5-6세가 되면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균형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역시 자녀들을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도록 교육을 시키십니다. 요셉이 받은 교육을 살펴보면 귀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광야학교에 입학한 요셉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가던 요셉은 형들은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했다가, 유다의 제의로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왕의 경호실장 집의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는 주인의 신임을 얻었지만, 안 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죄 아닌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간음죄를 짓지 않으려다가 억울하게 투옥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왕의 술을 맡은 시종과 빵을 맡은 시종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몽해준 일로 요셉은 바로 왕에게 소개됩니다. 애굽의 유명한 박사나 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한 바로 왕의 난해한 꿈을 요셉이 해몽했고, 그 일로 요셉은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후 아버지 야곱과 그의 일족을 애굽으로 이주케 하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로 드러난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런 가시밭길로 밀어 넣으셨는지, 그 고난의 광야학교를 통해 요셉이 받은 수업과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요셉의 인격과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가르친 교과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생들을 만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여러 선생들에게 불이셔서 교육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형들과 미디안 상인, 보디발과 그의 음란한 아내, 감옥의 간수와 왕의 시종들, 그리고 바로 왕- 모두가 요셉의 교사들이었

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맡은 과목을 충실히 가르쳐 요셉을 큰 인물로 만들어냈습니다. 요셉이 옮겨 다니면서 공부한 교실들도 많았습니다. 자기 집, 깊은 웅덩이, 사막, 노예시장, 보디발의 집, 감옥, 왕궁 모든 것이 요셉이 수업을 받은 교실들이었습니다. 그런 교실에서 배우고, 익히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장했습니다. 코리넌 부여사가 자기 책 서문에 "은 세계는 나의 교실이다"라고 썼는데, 요셉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요셉의 수업 과목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배우게 하신 과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인내'과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인내가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품위 있는 인격도, 향기로운 믿음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억울함과 분노를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야고보는 욕을 거론하며 인내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니라"(약5:11). 성급한 욕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욥2:9)고 분노를 드러냈지만 욕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욥2:10)며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하

나님은 그에게 감정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깨달은 자는 환난을 즐겨워한다고 했습니다(롬 5:3-4). 요셉의 두 번째 수업 과목은 '겸손'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생활을 열심히 해도 교만한면 망합니다. 아무리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어도 교만한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벧전5:5). 여기서 '대적하다'는 단어는 '적을 치기 위해 군대

를 배치시킨다' 뜻입니다. 쉽게 말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들이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택한 자라면 그 사람의 교만이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다루십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면 평생 고난의 불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귀가 강박하여 옳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외면하며 지도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형들에게도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꾸짖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통해 겸손한 자로 변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바로 왕을 주님 대하듯 섬기며 총성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겸손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수업과목은 '믿음'이었습니다. 영생은 보이지 않는 하

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영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10년 동안 무술을 익혀 통쾌하게 원수를 갚는 장면들입니다. 이를 본다면 인간 본성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덕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놓으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남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받은 용서는 취소된다는 것이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요셉 앞에 엎드려 다시 용서를 빌었지만 요셉의 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창50:19).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속에는 귀한 영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 다시 말해 복수는

히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원망'입니다. 원망이란 자기를 정당화 시키려는 도구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고, 시대나 환경을 원망하는 등 평생 누구를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둔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때를 기다렸습다. 반면에 출애굽 1세대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함정은 '낙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던 요셉은 일순간에 죽음 직전까지 내려갔고, 시장에서 파는 노예가 되었으며,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현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제자들에게 낙심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엡 3:13). 낙심이란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낙심에 빠지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했는데 고난이 계속된다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학교에 입학시켜 교육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목적은 향기로운 인성과, 덕성과, 영성을 길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광야학교 수업을 잘 받으십시오. 공중의 왕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어미는 새끼를 공중의 왕으로 만들려는 교육이요 훈련이지만, 그것이 새끼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고난일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교육을 위한 고난이라면 오래 참는 인내를 기르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이 몸에 깊숙이 자리 잡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모든 사람을 용서하므로 원수가 발붙일 틈이 없게 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감사하며 찬송하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erimkang@hotmail.com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

창세기 45장 1-8절

사람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 내가 갚으리라" (잠12:19). 하나님의 심판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학교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 고난의 광야학교에 들어가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육의 사람은 부단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의 도처에 있는 함정에 빠져 믿음 다 쏟아버리고, 원수에게 붙잡혀 인생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분노, 미움, 저항, 원망, 자포자기, 음행, 타협... 등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이런 함정을 피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광야생활을 하면서 특별

영안이 열린 요셉은 그동안 자기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 45:5). 여러분을 모욕하고 괴롭힌 사람을 하나님이 교사로 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셉의 네 번째 수업과목은 '용서'였습니다. 인류역사가 전쟁사인 것을 보면 인간은 용서보다는 복수를 선호한다는 사

사람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 내가 갚으리라" (잠12:19). 하나님의 심판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학교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 고난의 광야학교에 들어가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육의 사람은 부단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의 도처에 있는 함정에 빠져 믿음 다 쏟아버리고, 원수에게 붙잡혀 인생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분노, 미움, 저항, 원망, 자포자기, 음행, 타협... 등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이런 함정을 피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광야생활을 하면서 특별

영안이 열린 요셉은 그동안 자기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 45:5). 여러분을 모욕하고 괴롭힌 사람을 하나님이 교사로 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셉의 네 번째 수업과목은 '용서'였습니다. 인류역사가 전쟁사인 것을 보면 인간은 용서보다는 복수를 선호한다는 사

죄인된 인생의 연약함

최근에 교회를 방문한 어느 성도가 질문을 했다. 평생을 교수로 사시면서 은퇴하신 분이신데, 나름대로 학문의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죠. 조심스럽게 질문하기를, 왜 목사님들은 영터리(?)같은 트럼프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이었다.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다리에 총을 쏘거나, 국경 접경지대에 공격적인 짐승을 풀어 놓아서 그들을 해치도록하며, 그의 말하는 언어들이 전혀 호감을 줄 수 없으며 지도자의 품격이 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많은 목사님들이 트럼프같은 사람을 지지 하느냐 하는 의문이었다.

갑작스런 질문에 이리저리 상식을 들어 설명하고자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지혜로우신 집사님이 한마디 하셨다.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의 정책 중 반동성에 등의 일부정책에 대한 지지일 따름이다. 사람자체를 어떻게 믿고 지지하셨나?' 전구를 반짝이게 만드는 명답이었다.

죄인된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하면서, 듣는 이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의 신분으로 너무 법을 지나칠 정도로 애용(?)했다는 것이다. 편법이 너무 지나쳤다. 과거 그의 정의롭고 옳은 말들이 다시 그 자신을 옹아매는 울무가 되었다. 결과 속이 다른 내용들이 새로운 주말 드라마를 기대감 속에 보듯이,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족과 가문에게서까지 그 숨은 폐해들을 드러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속물 자본주의적 발상과 행태를 이어오면서도, 앞에서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말과 글로 도배를 하며 많은 이들을 속여 왔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자녀를 위한 입시제도에 있어서 드러난 불법과 편법에도, 그와 그의 정치세력들은 절차의 불법성이 없음을 주장한다. 품앗이 하듯 가진 자들의 부모들이 상호 상부상조하는 데, 인맥이라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있으면 왜 못하겠느냐? 그렇게 지지받았을 이어간다.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 한국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이 상 가진 자들의 자녀들을 조사하면 제2, 제3의 조국이 얼마나 많겠냐? 그렇게 반응한다. 실

진 기회들을 그는 아주 명석하게 이용한 것 아니겠는가? 자식성공 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 어디 있는가? 도적질을 해서라도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 아닌가?

돈 버는 데 점잖게만 벌려는 사람이 몇이 되겠는가? 이 땅에 걸로 양복에 넥타이 매고, 뒤로는 음흉한 짓을 일삼으며 속과 겉을 다르게 포장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멀리 볼 것 없이 우리의 내면의 죄성을 생각할 때, 그 악함이 우리자신을 얼마나 놀라게 만들던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집중탐사의 주인공이 된다면 말정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드러난 것 보다 더 염려

조국 장관에 대한 '편법의 내로남불'과 '불공정의 정의'에 대한 염려는 인간의 죄성에 비추어보면 설명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먼 이민 땅 타국에서 살아가며 조국 대한 마음은 그러한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의 사상과 행위의 결정 근거가 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자체보다 목적자체가 모든 지향점이 된다는 것이다.

변형된 사회주의적 관점이라고 말하지만, 과거 우리 부모세대가 겪었던 공산주의의 출산물과 같은 결과이다. 한마디로, 사상에 경도된 고집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들과 딸, 부인 등 수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매시간 보도가 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는 좌고우면 없이 직진한다. 마치 사상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등에도 칼을 쏘았던 공산주의식 사고행태이다.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로서는 불가해한 일이다.

참과 거짓은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들에게 참과 거짓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평가기준만 있을 따름이다. 한국적 상황의 부적절성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나오는 말이 '너도 진일파냐?'부터 시작하는 것을 본다. 옳고 그름, 이해와 설득을 통해 드러낼 많은 일들에 대해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다. 편협된 생각의 갈래들을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죄인된 인생과 공공의 책임

-조국, 공정의 상식, 회복

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대답이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대해 지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품격은 미국의 지향점은 아니다. 미국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나라이지, 자기 배만 위하듯 하는 것은 온전한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동성애 합법화의 문제들은, 다른 어떤 부분을 내려놓더라도 결코 우리 교회들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보수적 신앙의 관점에서 부합된 정책을 포함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것이다.

제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인생 전부를 걸고 이민 오신 분들을 보면 그런 상황이 이해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

고3 아이를 둔 한국의 친구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타국에 머물면서 아이가 12년 동안 한국의 학교에 재학한 기록이 없는 경우 유명 사립대 특별전형에 해당되기에, 부모가 낫선 타향에서 떠돌이 방랑생활을 할지라도 오직 아이의 진학을 위해서는 당연히 희생한다는 것이다. 한국 부모들만이 가능한 이야기이다.

국 개인자신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 정권 전체가 가진 사상적 조류의 판단준거가 된다는 데 심각함이 있는 것이다. 금번 사건에 반응하는 정부의 행태나 정치가들의 입장을 보면 저들이 과연 한 나라의 지도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일건 지도자라고 할 때, 나라와 민족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최우선 요구되지만, 이들의 행태는 일반 개인의 상식적 기준으로서도 합당치 못한 것이다. 자신과 생각과 견해를 달리하면, 그 생각의 꺼리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취급한다. 그들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나를 반대하면 무조건 부모죽인 원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의 갈래들 속에서 좌와 우 어느 한쪽의 선택의 결과지만을 강요할 뿐이다.

을 본다. 사람에 대해 신앙을 요구하는 것을 본다. 그런 광팬이 존재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식을 따르는 일이 바탕은 되어야 나라꼴이 되지 않겠는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금번 일을 통해서 드러난 유익함도 있다. 그의 생각과 삶과 판단준거들을 보면서 진보진영의 정의로움이란 것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저들의 위장된 선이 드러난 것이다. 물론 보수진영이라고 해서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 기대감 자체가 다를 것이기에 비교불가능한 것이다. 정의로움이라는 이름의 사상에 경도된 체 저들 정치세력이 가지는 장기집권의 꿈을 그대로 인정하고 갔더라면 조국과 민족의 미래는 정말 참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국, 대한민국, 편법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한 장관에 대한 좌우 진영의 세력싸움에 대단하다. 오늘 아침에 그의 사임소식이 들려지지만 두 달 동안 진행된 일들을 보면, 한국사회가 얼마나 좌우 진영의 편가르기가 도를 넘어섰는가를 알게 된다. 한마디로, 사람자체에 대해 신앙적인 믿음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좌우 모두 하나의 종교집단들이 행하는 것처럼,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서 무조건적지지 속에 내일을 예비하지 않을 듯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스를 통해 보면 그의 모습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법을

인간죄성, 표리부동, 관용

조국이라는 사람의 이력은 화려하다. 부족함 없는 가정가문에 학력과 기타 사회적 조건에 있어서 우월한 기력이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저런 평범한 소시민적 결부들에게나 나라 날 일들이 일어났으니 경천동지할 일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인간죄성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이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람자체에게 무슨 완전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표리부동한 면을 가진 인간죄성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어디 그 사람뿐이겠는가? 어떤 면에서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인간이 없는데, 그에게 주어

참과 거짓, 유익함

과연 이들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인가? 보통의 범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배우고, 고도의 정치적 훈련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 위해 자원하여 나온 이들이 저들 아닌가? 그러나 금번 조국 사건을 통해서 드러낸 것은, 오로지 더러운 욕심에 근거한 정치집단의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

고 바라볼 것을 생각하게 된다.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민자의 삶의 현실에 얽매어 순간순간 그냥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다. 내게 나타난 문제가 아니면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만다. 그러다보니, 조국을 위해 울 일도 없고 금식할 일도 없다.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일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신의 일에만 경쟁하고 싸우고 욕심에 얽매며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민자의 현실이다.

성도다운 해법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성도다운 해법을 생각한다. 긍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지향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로마가 적 기독교자로 기독교를 수백년간 핍박하였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받았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언제인지요?

A: 한국이 역사적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르호보기독교는 거의 300년에 걸쳐서 일곱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의 주역에 담당했던 자들은 네로, 트라잔, 하드리아, 아우렐리우스, 데케우스, 발레리안 등이었고 4세기에는 303년 동안 마지막 마르쿠스 데오클리안 황제가 핍박하였습니다. 사실 데오클리안 황제는 그의 부인 프리스카와 딸인 발레리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신하들과 관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치안대와 군인들이 성경을 불태우고 기물들을 탈취하며 교회건물을 파괴하고 교회지도자와 직분자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투옥된 제도자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게 하고 불복할 때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습니다. 그럴때 기독교가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는데 콘스탄틴(Constantine The Great)의 등장이었습니니다.

305년 이후로 로마제국은 서방에서는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가 제국의 권력을 장악하고자 접전했는데 결국은 한판 접전이 불가피했습니다. 콘스탄틴은 로마의 경쟁자인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출정하였습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콘스탄틴은 열세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신자가 아니었고 미트라스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미트라스는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준다고 믿는 종교였고 군인들이 선호했던 종교입니다. 큰 전투를 앞두고 있던 승리의 확신이 없어 고민하던 콘스탄틴은 그날 밤 꿈에 예기치 못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의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라틴어인 "인 후 시그노 빈세스" 십자가를 통해 너는 이것으로 승리하라"라는 말씀을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었지만 너무나 그 꿈이 강렬해서 신의 계시라 생각했고 그는 십자가를 모든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고 그 방패를 들고 나가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헬라어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 첫 두 글자인 키와 로를 겹쳐 쓴 문장의 깃발을 들고 나가 싸우게 했습니다.

다음날 AD 312년 10월 28일 티베르 강을 사이에 두고 접전이 일어났는데 콘스탄틴은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막센티우스는 도망하다가 밀비안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서방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24세, 그리스도가 나를 도우셨다며 태양신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주후 313년에는 기독교의 예배와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는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도 주었습니다. 관료의 요직에 기독교인들을 임명하고 교회의 재산을 환원하고 유배되었거나 투옥되었던 지도자들이 풀려났습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현장에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 새노래로 찬양하라. 어둡고 고통스러운 날이 지난 후 지난날의 무거운 짐을 벗고 광명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정식으로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전파의 흰 말이 결국 적그리스도국이었던 로마제국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다시 또 다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불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느헤미야는 그저 밧을 걸고 기도했다. 기도해야 한다. 급한 만큼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비마(BIMANESE)

비마인들은 인도네시아 섬들의 원주민이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의 바로 남쪽의 인도양에 위치해 있다. 현재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계속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300개 이상의 각기 다른 다양한 인종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들 그룹 중 대부분은 비마를 포함해 무슬림이다.



비마인들은 쑤바와섬에 살고 있다. 섬의 동쪽 부분이 "비마"라고 불리는 반면 "쑤바와"라는 이름은 원래 섬의 서쪽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섬 전체가 쑤바와라고 알려져 있다. 비마인들은 섬의 계곡에 살고 있으며 근처 톰보코섬에 사는 사사크족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비마라고 불리는 그들의 언어는 말레이-폴리네시아 어족이다. 지역 전통에 따르면 비마는 힌두교의 영향을 나타내는 이름의 52 수뇌 왕자(ruling princes)가 있었다고

한다.

삶의 모습

긴 해안선에도 불구하고 비마인들의 마을들은 보통 해안에서 적어도 5km(4마일)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섬의 대부분이 넓은 들판으로 덮여있고, 논은 북쪽 강 연안과 중앙에 있는 강 팔짜기를 따라 일년 내내 경작되고 있다. 기후는 온도변화가 거의 없는 열대성이며 쑤바와는 또한 뚜렷한 건기와 우기가 있다. 비마인들의 생활습관은 건기와 우기 쌀농사, 그리고 과일과 채소경작을 하는 시기에 맞춰져 있다. 쌀이 주요작물이고, 두 번째 작물은 양파, 콩, 약간의 담배와 커피가 있다. 농업뿐 아니라 쑤바와는 또한 견과류, 등(종려) 그리고 밀

같은 산림작물이 풍부하다. 14세기 이후로 쑤바와는 작고 힘센 말들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말들은 근처 자바섬에 수출되었다. 1920년대 비마는 다시 한 번 중요한 말 생산지로 알려졌다. 하나의 비마인 마을은 종종 더 작은 촌락으로 둘러싸여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년의 일부는 공동농장이 있는 산에 가서 살고, 추수 후에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온다. 만약 젊은 남자가 청혼을 하고자 하면 젊은 여자에게 말잡하는 여자중매자를 보낸다. 그 여자는 그 때 공식적인 용어로 청혼을 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신랑은 여자의 부모에게 신부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 가격은 신부의 사회적 위치에 달려있다. 일단 결혼하면 젊은 부부는 즉시 자신의

독립된 가정을 세우야 한다. 비마인들의 가장 중요한 지역단체는 촌락이다. 각 촌락은 '모스크'라고 불리는 각자의 무슬림 사원이 있다. 모스크의 우두머리는 모든 종교행사와 연간 축제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신앙

쑤바와(비마)의 38째 지배자가 1640년대에 이슬람에 개종했고 오늘날 비마는 99.9%가 무슬림이다. 그러나 아직도 각 지역의 원시적인 애니미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 비마인들의 문화에서 무당이나 주술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날까지 사회에 수많은 무당들이 남아 있다. 이슬람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많은 비마인들도 어려움

이 있을 때는 여전히 무당의 도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비마인들 중에 신자로 알려진 사람들은 소수다. 불행히도 그들은 교회성장이나 전도에 필요한 자료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단지 한 선교단체만이 최근에 비마인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비마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 없고 성경도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어떤 누구도 멸망하길 원치 않으신다. 비마인들은 이슬람과 애니미즘에 묶여 영적 어둠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누가 기꺼이 가서 비마인들에게 진리를 전하려 하는가?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초대교회 인근에서 '오병이어' 모자이크 발견

고고학자들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갈릴리 바다 인근에서 오병이어가 새겨진 모자이크 문양을 발견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현지 언론 하레츠(Haaretz)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문양은 오늘날 키텔레 호수로 알려진 게넷사렛의 히포스-수시타(Hippos-Sussita)에 위치한 번트교회(Burnt Church)에서 발견됐다.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이 교회는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하레츠는 "약 1,600년 만에 처음 발견된 이 모자이크는 색이 밝고, 틀림없이 오병이어 사건을 주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떡과 물고기와 더불어, 이 모자이크는 석류 모티브의 디자인도 포함하고 있다. 번트교회는 지난 7월 한 고고학자팀에 의해 발견됐으며, 그 이후로 5세기 경 지어진 건물의 조각들이 출토됐다. 교회가 번트교회로 불려지게 된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7세기 페르시아 사산 왕조 당시 이 교회에 불태워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내부에 있는 집기들은 모두 새로 변했으나, 이 잿더미가 수세기 동안 바닥의 모자이크 문양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고.

히포스-수시타(Hippos-Sussita) 지역의 발굴팀을 이끈 마이클 아이젠버그(Michael Eisenberg) 박사는 "3개나 6개가 아닌 정확히 5개의 빵이다. 각각 다른 색이 밀과 보리 등 다른 반죽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원형 부분 아래에는 물고기 2마리가 있다"면서 "모자이크에 있는 빵과 물고기에 관해 다른 설명을 할 수도 있으나, 분명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의 유사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모자이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교회의 작은 예배당에 그려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모자이크는 신약에서 전하는 오병이어 사건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美·中 무역협상 부분 합의

미국과 중국이 농산물 구매와 추가 관세 인상 보류 등 일부 조건을 주고받는 부분적 합의(스몰딜)를 하면서 무역전쟁이 휴전 모드로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대한 합의"라고 자평했지만 실질적인 승자는 거의 양보 없이 휴전을 이끌어낸 중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중국과의 부분적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 농가를 위해 이뤄진 가장 위대한 합의"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트위터에서 "내가 중국과 한 합의는 이 나라 역사상 위대하고 애국적인 농부들을 위해 이뤄진 가장 위대하고

큰 합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많은 상품이 (미국에서) 생산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고맙다. 중국"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보잉 항공기도 거론했다. 그는 "합의의 다른 면들도 대단하다"며 "기술, 금융서비스, 보잉 항공기에 160억~200억 달러 등이다"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무역 합의가 200억 달러어치의 보잉 항공기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1일 백악관에서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합의문 작성까지는 "3~5주가 걸릴 것"이라고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올리려던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합의 내용에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12월부터 시행될 관세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과 10일부터 이틀간 협상을 벌였다.

협상 결과에 대해 중국의 실질적인 승리라는 평가가 많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재선을 위해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을 간파하고 거의 양보하지 않고도 휴전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관리는 "미국은 관세폭탄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FT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양보 없이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하자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나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등에 대해 중국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농산물 수입 확대만으로 관세 부과를 유예해줬다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스티븐 케네디 선임고문은 "미국은 관세 인상을 피하고 금융 시장을 안정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휴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상 결과에 매우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무종교 인구 계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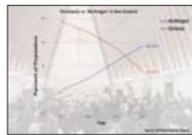
뉴질랜드에서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8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 가운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26만 4천601명으로

조사 대상자의 48.2%를 차지했다.

뉴질랜드의 무종교 인구는 지난 2001년에는 29.6%, 2006년에는 34.6%, 2013년 조사 때는 41.9%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의 캐시 코놀리 인구조사 담당관은 "이번에 나온 조사 결과는 그동안 실시된 인구조사에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해온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는 성공회, 가톨릭, 개신교 등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민자 유입 등에 힘입어 힌두교, 이슬람, 시크교 신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주, 美 최초로 공립학교 등교시간 늦추기로

캘리포니아주가 공립학교의 등교 시간을 의무적으로 늦추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일간 LA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개별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이런 내용의 법률을 서명했다. 등교 시간을 늦추도록 의무화한 것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이 법은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최종적으로는 중학교의 경우 오전 8시 이후에, 고교는 오전 8시 30분 이후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0교시'로 불리는 이른 시각 선택과목이나 일부 시골 지역 학교에는 이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2022~2023년 학년도의 시작 때 또는 학교가 직원들과 맺은 3년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때 가운데 더 늦은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수면시간을 줘 학업 성취도를 증진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를 늦게 시작하는 10대 학생은 학업 성취나 출석,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주지회의 분석에 따르면 절반 정도의 학교가 새 법률을 지키려면 등교시간을 최대 30분 정도 늦춰야 한다.

학교의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는 미국학계와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년간 논란이 돼왔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들이 반대했고, 뉴섬 주지사의 전임자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도 주의회에서 거부당하기도 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청소년들의 늦은 등교 시간과 더 많은 수면 시간이 건강이나 학업 성적 증진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을 들어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을 지지해왔다.

반면 교사노조 등 반대론자들은 등교 시간 변경이 스쿨버스 노선에 영향을 끼치면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모들이 출근 전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지 못하게 되고 정규 교외 활동이 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 애플에 이어 홍콩시위관련 앱 차단

애플에 이어 구글이 홍콩의 반(反)정부 시위와 관련된 앱을 잇달아 차단하고 나섰다. 실시간 지도 앱은 물론이고 게임 앱도 차단됐다. 미국 IT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중국 정부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은 10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홍콩 시위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임 앱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시대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이 앱은 사용자가 홍콩 시위대가 되어 게임을 하는 것이다. 구글 대변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갈등이나 비극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회사의 방침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의 삭제 배경에 홍콩 정부로부터 '우리 시대의 혁명' 앱이 시위를 조장한다는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은 전날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을 산 홍콩 경찰 위치 추적 앱을 삭제했다. '홍콩 맵 라이브'라는 제목의 이 앱은 시위 참가자들이 텔레그램에 올려놓은 정보들을 모아 홍콩 경찰의 현재 위치나 최후단 사용 여부 등을 알려준다.

애플은 이날 설명을 통해 "홍콩 맵 라이브 앱은 홍콩의 법규를 위반했다"면서 "조사결과 이 앱이 홍콩 거주민들과 법 집행기관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사용돼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홍콩 맵 라이브 앱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용되고 있어서 삭제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쿼츠(Quartz)'라는 뉴스제공 앱도 "중국에서 불법적인 앱"이라는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애플은 이달 초 홍콩 맵 라이브 앱 출시를 불허했다가 중국 정부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자 4일 다시 허가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항의에 직면하자 삭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10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홍콩 맵 라이브 앱에 담긴 경찰 검문소의 위치나 주요 시위장소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 무해하다"면서도 "홍콩 시위대가 개별 경찰관들을 표적으로 삼고, 매복했다가 경찰을 공격하는 데 이용했다. 이 정보는 홍콩 사이버보안·기술범죄국과 애플 사용자 양측으로부터 얻었고, 믿을만한 정보였다"고 설명했다.

쿡 CEO까지 나서 앱 차단 이유를 해명했지만 논란의 커지고 있다. 애플이 앱을 차단한 시점이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애플이 시위자들을 후원하고 있다"며 비난하자마자 결정된 조치이기 때문이다. 홍콩 맵 라이브 앱 제작자 측은 "애플의 이번 조치는 홍콩에서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려는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과 구글의 조치에 대해 거대한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하이 시장조사회사인 차이나스키니의 마크 테너 국장은 "앱 삭제 결정은 중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면서 "특히 애플의 경우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부상하며 이미 브랜드 지위가 위태로운 상황이라 중국 소비자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에티오피아 총리, 올해 노벨평화상

아비 아머드 알리 (43) 에티오피아 총리가 노벨평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1일 201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알리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알리 총리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평화 협정 체결에 기여했다. 알리 총리는 사상 100번째 평화상 수상자의 영광을 안게 됐다. 에리트레아는 1952년 에티오피아에 합병됐다가 30년에 걸친 투쟁 끝에 1993년 독립했으나 1998~2000년 국경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져 양측에서 7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알리 총리는 그런 에리트레아와의 화해를 추진했고, 양국은 지난해 7월 종전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84. 전경무(1900-1947)

전경무(田耕武)는 1900년 평안북도 곡산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를 따라 1906년에 하와이로 이주했다. 그는 1913년 유학차 도미하여 미국인에게 입양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거주 리버사이드에서 중학교 1학년이었다. 그런데 1916년에도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는 리버사이드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클레먼트 중학교였다. 미시간 주립대학에 입학한 그는 재학 중 웅변반 반장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정치학을 공부하고 1924년에 미시간 주립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미시간주립대학을 졸업한 그는 전경무는 부모가 거주하는 하와이로 돌아와 자동차 도장업으로 재산을 모았다. 1931년에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원단체인 단합회에 가입하고 임정을 적극 후원했으며 임정 후원은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한 뒤 한국 광복전선 결성에 참여하면서도 계속되었다.



전경무

1933년 2월 시카고한인감리교회 전임 전도사로 청빙 4개월 시무 이후 이사, 건축기성위원장으로 헌신... 귀국 후 이화여전 교수 등

송별사와 환영사에 이어 영광스럽고 배민수와 백인 킴 씨 및 전경무 부인 등의 간단한 감상담과 갈홍기 목사의 고별사가 있었다.

그리고 난 후 전경무 전도사가 취임사 겸 목회방향을 말했다. 그의 목회방향은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을 발휘할 것과, 사회운동과 정치운동과 경제운동에 주력할 것과 그리고 미국에서 출생한 제2세 국민에게 교육을 보급해서 조국의 정신과 조국의 문화와 언론에 충실한 사회 인격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세 가지였다.

전경무의 첫 행사참여는 강영승 박사 환영회였다. 학생회와 국민회와 흥사단 등 세 단체가 연합으로 1933년 2월 11일 밤 국제회관 내에서 가진 강 박사 환영회는 대성황이었다. 학생회 사교부위원장 이응영의 사회로 배민수의 기도 후 1시간 식사한 뒤 사회자의 간단한 환영회 이의, 국민회 지방회장 한장호의 환영사, 강영승 박사의 답사, 김배세의 '사비수 노래' 독창이 차례로 있었고, 전경무가 갈홍기, 김 경 등과 함께 감상담을 말했다. 그리고 친교순서가 있는 후 늦게 마쳤다.

그해 2월 강영승이 4, 5년간 경영하던 '로렌스 카페테리아'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김 경이 동업하기로 하여 김 경이 거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식당을 위생적으로 적당하고 미술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수리하고 더욱이 사무실과 지하실을 새롭게 수리하고, 주방을 광대하고 청결하게 벽돌로 새로 건축하였다.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낙성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날 낙성식에 전경무가 사회를 보았다. 그의 간단한 사회사에 이어 다수의 내빈축사가 있었고, 늦게까지 친교하다가 해산했다.

그해 삼일절 기념식이 본 교회에서 장엄하게 있었다. 식장과 여러 가지 반반준비에 힘을 많이 써준 강정근과 박영직 등과 함께 전경무에게 본 기념식 사회자가 감사를 드렸고, 이에 모인 회중이 박수로 사례했다.

그해 4월 김장호가 사망했다. 그는 시카고에서 20년간 사업 혹은 노동 생활을 하였는데 그달 1일 밤에 중국인 타운에서 자동차에 중상을 입은 후 국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5, 6 시간을 지나지 않아 영면하여 세상을 떠났다. 전경무는 자신과 함께 김 경, 강영승, 한장호, 김홍기, 윤림과 장래위원회를 조직하고 장례식을 한 후 마운츄 공원묘지에 안장했다. 그의 유산은 장례위원회가 조사하여 그의 친척에게 보냈다.

11시까지 친교했다. 전경무는 1933년 6월 11일 주일에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담임 전도사직을 사면했다. 그는 4개월간 시카고 한인감리교회를 섬겼다. 교인들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보수 없는 일에 성력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시무함에 감사를 하지 않았다.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이사

전경무가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담임 전도사직을 사면한 6월 11일 주일에 교인대회를 개최하고 금년에 교회를 관리할 신임이사를 선거하였는데 전경무가 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외에 장세운, 한장호, 임 호, 김 경, 강정근 그리고 하회옥이 이사로 선정되었다.

전경무가 사임한 그달 23일 북미대 한인유학생총회 중서부연회가 제11회를 맞아 시카고 한인 감리교회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는 전경무가 황창하와 이병두 등의 알선으로 1923년에 조직되었는데 전경무가 개최자인 시카고 한인감리교회의 이사로서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해 9월 20일에 버지니아 주에서 오현승이 사망했다. 그는 평북 정주군에서 태어나 연희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하고 유학차 도미하여 시카고중앙기독교청년회 기계전문과와 타그란

트루이스로 이주하였다가 그해 5월에 시카고로 다시 이주했다가 그해 12월에 캘리포니아주 나성으로 이주했다. 그는 나성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다. 1938년 8월 3일 저녁에 본 교회를 관리할 신임감독 마틴 박사를 위한 만찬회가 있었다. 윤 혁의 사택에서 미국교회 측에서는 마틴 감독부부와 프라이 박사부부 그리고 테비스 목사부부가 참석하고, 한인교회 측으로는 동 교회 목사 황사용과 예배당 건축기성위원회 위원,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대표 등 수십 명이 참석했다. 만찬회 사회는 전경무가 맡았다. 그의 유창한 영어는 회식의 흥미를 북돋웠다. 만찬회 후 동 교회 예배당에서 환영회가 있었다.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무의 귀빈 소개에 이어 주일학교 학생의 합창,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이날 마틴 감독은 수년 전에 본 교회가 계획한 총 15,000달러의 예배당 건축을 이루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건축기성위원회의 회장에 전경무였고, 영문서기에 이마리아, 국문서기에 최능익, 재무에 황성택과 임 풀 그리고 건축 예산위원회 김필권, 황성택, 최능익이었다.

이듬해 2월에 나성한인감리교회 계삭회는 몇 가지 결의를 하였다. 이 중 신축 예배당 기기를 속히 매수하고 이를 실행할 5인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전경무를 선정했다. 그 외 5인 위원회에 닥터 나인과 닥터 테비스 등 외국인 두 명과 황사용, 황성택 등 한인 두 명 등 총 4명이 더 있었다.

귀국

하와이로 건너간 전경무는 하와이 태평양 주보와 국민보의 합동한 신문의 주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워싱턴 사무실과 위의 연합위원회 의사부 대표, 그리고 신한민보 통신원으로 활동했다.

조국이 해방되자 귀국한 전경무는 이화여자전문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 무렵 그는 조선체육회 부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올림픽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영입되어 런던올림픽 참가를 목표로 IOC 가입을 추진했다. 그런데 1947년 6월 15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제40차 IOC 총회에 참석차 5월 29일 저녁 미 군용기를 타고 가던 중 일본 동경 근처의 산정에서 탑승 비행기가 충돌하여 참사하였다. 그의 체육장 영결식은 6월 18일 오전 10시에 서울 운동장에서 정중하게 거행되었다. 전경무는 11세 된 딸 하나를 남겨두고 경기도 남양주군 금곡 천주교 묘지에 안장되었다. 1995년에 그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고, 고인을 추모하는 뜻으로 올림픽 파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복권발매에 고인의 사진을 넣었다.

damien.sohn@gmail.com



전경무의 사진이 들어간 복권

그해 12월 25일 저녁 본 교회당에서 있었던 성탄축하식은 교회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준비하였다. 전경무의 사회로 김 경의 만아들의 찬송과 기도 후 강영승의 아들과 천세현의 자녀로 구성된 합창에 회중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한장호의 네 살 된 어린 딸의 독창에 교인은 크게 박수갈채로 환영하였고, 소녀는 세 번이나 앵콜에 답했다. 피아노 독주로 이관하의 딸이 출연했고, 한장호의 아들의 피아노 독주에 찬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갈홍기의 성탄사가 있는 다음

지 항공학교에서 공부하였고, 가을학기부터 버지니아 유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내려가던 중 백인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참혹하게 희생했다. 동행하던 한기도, 조한언, 박 필, 박순욱 등이 주선하여 버지니아 채스트넬에 안장했다. 고 오현승군의 추도식에 그가 이사로 참석하고 장비로 1달러를 기부했다.

건축 기성위원회 위원장

1934년 초에 전경무는 사업자 세인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8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림절찬양: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유,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 R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3)7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수요일기도회: 오전 5시 30분 새벽기도회: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6)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제 2편 실낙원(중)

3. 구조분석

이 서사시는 성경해석 학자 릴랜드 라이켄(Leland Bryken)이 분석하는 것처럼 교차구조(Chiasm)로 부르는 형식으로 배열할 수 있다. 첫째 1권에서 3권까지 사탄의 타락활동은 맨 나중의 10-12권까지의 인류타락의 활동과 맞물려 유비를 이루고 있다. 두 번째는 낙원을 차지하는 내용인 4권과 낙원을 상실하는 내용의 9권은 대조를 이룬다. 세 번째 천상에서의 전쟁과 파괴를 다루는 5-6권은 세상 창조로 보완되는 7-8권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또 다시 간략하게 줄인다면 1-2권은 사탄과 지옥, 3-4권은 천국과 낙원, 5-6권은 천상에서의 전쟁, 7-8권은 세상의 창조, 9-10권은 타락, 11-12권은 장래 역사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활동에 네 개의 우주적 배경-천국, 지옥, 타락 전 낙원, 통상적인 타락의 역사-에 입각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4. '실낙원'을 읽기 위한 도움

밀턴의 일차적 관심사는 독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심상들(images)을 통해 낙원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낙원'을 읽을 때, 저자가 가진 정교도적 관념에 대한 해설을 발견하려하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심상들을 깊이 삼고 하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일 것이다. 서술 장면, 인물, 사건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그의 심상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의 표현은 많은 부분이 픽션(fiction)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픽션에 대한 밀턴의 전략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적인 실재들에 생생하게 다가하도록 이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1-2권을 읽는 동안 우리는 악과 지옥의 심상을 볼 수 있으며 천국과 낙원의 완전한 모습에 대한 심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 후에 상상을 통해 천상에서

의 전쟁과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 창조를 그려보면서, 이어서 완전한 상태에서 타락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타락한 인류 역사를 살피며 잠재적인 구속(redemption)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미래에 대한 환상이 그리스도의 속죄심에 초점을 두고 펼쳐지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동산을 떠나는 장엄한 마지막 장면은 성도들이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섭리를 통해 위로를 받고, 타락한 세상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청교도의 전형적인 패러다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5. 실낙원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들

1)죄의 사악함과 불순종
사탄이 불못 속에서 일어나 천국에서 추방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보복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마귀 회의를 연다. 사탄과 사탄의 세력에 대한 광경에서 저자는 죄

와의 유혹과 타락을 서사적으로 표현하면서, 미래에 천상의 은혜가 인간의 죄악성과 싸우게 될 것을 서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2:359-360).

2)하나님의 속성과 주권
밀턴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밀턴의 시에서 성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지옥을 포함한 우주주 주권자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의 드라마의 모든 장면에서 활동하신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며, 무엇보다 3권의 전반부에서 묘사되는 천국의 장면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죄와 처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자연스럽게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하나님의 자비함과 대속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성자 하나님께서 천상의 대화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비가 처음부터 끝까지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3:134).

3)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며, 세상에 대한 구속의 주제를 가장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자와 관련해서다. 이 강조점은 이 작품의 시작에서 확인되는데, 에덴의 상실이라는 이야기의 주제를 선포

4)섭리에 대한 강조

밀턴은 섭리(providence)를 강조하는데 이 교리를 통해 그 자신은 그의 작품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로를 받았다. 첫 부분에서, 자신의 목적이 "영원한 섭리를 증명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옳게 드러내는데 있다"고 선언한다(1:25-26). 그는 타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함과 권능을 세상의 악과 고통이라는 사실과 조화시키는 신정론(神正論)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떠나는 마지막 장엄한 결말 장면을 묘사하면서 "섭리가 그들의 안내자였다"고 덧붙인다(12:647).

5)기독교적 인간관

이 작품에서 인간들은 이중의 능력 곧 선을 행하는 능력과 악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나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구속을 얻고, 그 구속의 한 부분으로서 영원히 영광을 얻으리라는 소망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청교도 철교가 윌리엄 퍼킨스가 "인간은 창조된 존재, 타락한 존재, 거듭난 존재, 영광 받을 존재라는 4중적 상태 속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표현한 생각과 동일하다. 밀턴의 묘사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적 선택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존재로 인식한다.

6)성경적 역사관

저자 관심사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심상들을 통해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 선과 악 사이 영적, 도덕적 전투 보여주는 영문학 중 강력한 실례의 하나

의 사악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저자는 이 불경한 무리가 보여주는 감정과 태도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에 대한 해부도를 드러냄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 영적 악이 통치자와 권세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한다. 동시에 이 사실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의 상황도 살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읽게 된다. 사탄과 지옥에 대한 저자의 묘사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삶과 상황 속에서도 지옥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강조하고 있다. 실낙원의 첫 장면은 밀턴이 이 서사시의 주제로 이름을 붙여 놓은 "인간 최초의 불순종"이다. 그는 죄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 작품은 아담과 하

한 다음, 즉시 "그 후 마침내 더 위대한 그 한 사람, 그가 우리를 구속하고 복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리라"(1:4-5)고 언급하는 데서부터 알게 된다. 천국에서 대화를 나누는 극적인 순간에 성자는 인류의 구속을 책임지겠다고 자원하신다. "따라서 구속이 없으면 모든 인류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 죽음과 지옥에 떨어지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더라면, 가혹한 파멸,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고 그분의 소중한 증보로 이처럼 새롭게 되나니..."(3:222-26). 타락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의 비참한 곤경 속에서 그들의 위대한 중보자로서 개입하시는 분이 성자시다(11:19). 밀턴은 그리스도 중심사상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천상의 전쟁 당시에 사탄을 패배시킨 당사자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함으로써,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부각시킨다.

'실낙원'의 기반을 이루는 성경적 역사관은 세상의 역사는 영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성경적 역사관은 완전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으나 이 상태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타락으로 인해 상실된다. 이후로 오랫동안 죄의 상태에서 고통스런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고, 이 이야기 속에서 신앙의 행위는 찾아보기 어렵다(12:535-36). 그러나 시간은 결국 멈출 것이며(12:555), 무한한 날의 시대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의와 영광과 사랑에 뿌리를 두고 세워질 것이다(12:5439-50).

7)사탄의 내면적 절망과 심리
실낙원의 전체에서 독자들로부터 가장 즐겨 읽히는 부분은 사탄과 반역천사들이 주로 등장하는 시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3면으로 계속)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기복신앙의 열매

참고 성경: 왕하 7-12장

하나님을 섬긴 왕 여호사밧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해 바알을 섬기는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을 결혼시켜 우상숭배로 유대를 더럽히게 하는 큰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보다 실리가, 정략결혼으로 부추기는 우상숭배의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른 기복신앙의 병폐가 불신앙보다 더 악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인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악인 경영법이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극악하게 악이 다다르니 아합의 집에 속한 자를 저보다 더 사나운 예후를 일으켜 멸하게 하시고 그에게 4대를 약속하시나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몰질사랑에서는 돌이키지 않았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서는 챙기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은혜를 나눔은 놀라운 복이다.

권력을 온갖 수단 방법으로, 왕좌를 차지하면 세상이 제 것으로 착각해 반역이라 악쓰는 아합의 딸 아달라의 발악을 본다. 결국 아합의 씨를 끝까지 악으로 만용 한 듯이 최후도 비참히 죽었다. 권세가 큰 행복을 안겨다주었다고? 그리 탐욕을 부렸는지?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림이 가장 비극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생명의 은인 대부분의 믿음을 배은 망덕하게 제 갈 길을 가는 요아스를 보며 나의 지나친 의가 자녀들에게 덕이 되는지? 반감을 일으키는지? 여호아다를 보며 의의 이름으로 주님의 앞길을 막지 않았는지 자속한다.

사랑하는 주님!
기복신앙 여호사밧, 악한 기회주의 아합, 예후, 아달라,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요아스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란 곱감 빼먹듯 이기주의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 고개 숙여 스스로 돌아봅니다. 사실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울지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든 본인이 심은 대로 받고 세상을 살다가네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은 인생은 그저 고통뿐입니다.

가난하던 부하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요! 새삼스레 우리 주님을 알게 됨의 영광을 깊이 감사합니다.

heeenlee55@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c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태어날 때: 오전 11:00 수요일영아예배: 오후 7:30 수-목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믿음실용(월-금): 오전 5:30 토요일영아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714)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5:30(월-토) 6:00(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8: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8-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새벽기도: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j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원: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66-6200, www.grace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침례: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j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대학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tone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핍(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 예배: 10시 50분 인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중기의 정미에 돌이켜 본즉 궤와 짐을 위하여 낸 이혼의 지팡이에 흙이 황과 섞여 눈이 보이지 피어서 삼구 열매가 되었다." Tel. 213 924-3340, www.pim1004@gmail.com 3944 Wilshire Blvd, LA, CA 9001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력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안나한인교회)

아베여, 그대에게 감사하노라

지금 세계는 모락이 판을 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제재를 하면서-지금 당분간은 휴전을 하고 있지만-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수상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한국으로의 수출 제재라는 수를 던졌다. 이에 화가 난 한국 국민들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2, 3년 후에 세계판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처음에는 아베의 그런 모락을 보면서 이게 뭐지라며 혼란스러웠다. 아베는 자신들의 손가락을 몇 개 자르더라도 한국의 손과 발을 잘라서 한국의 경제를 고사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아베여, 그대에게 감사하노라”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1982년에 미국을 향하여 오는 도중에 일본에 들렀다. 일본에는 고모님이 두 분 계셨고 상당한 숫자의 사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몇 주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자세를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당시 한국은 일본에게 30년 정도 뒤져있다는 말이 있었었는데, 나는 10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삶의 자세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다는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일본 사람들은 매우 공중 질서를 잘 지켰고, 그들의 도시와 주거환경은 매우 청결했으며, 그들의 몸과 생활에는 친절함과 겸손함이 깊이 배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

다. 그리고 나는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별 의식 없이 일본제품들을 구입해서 사용했다. 일본 제품들의 실용성과 가격대비 성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간혹 일본제품 구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 좁은 사람처럼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민생활 중에 일본친구들도 몇 명 생겼는데 그들은 정직했고 타인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일본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패전 후에 일제 강점기에 저지른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사죄하며 작은 보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점차적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

을 부정하고 미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전쟁을 동양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하였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사건, 그리고 천안공로 할 살육들과 잔혹한 생체실험 사건 등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과거의 군국주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주변 국가들을 무력과 경제력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그런 일본정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약 15년 전부터 혼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던 차에,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한 몇몇 어르신들이 당시 일본기업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줄 것을 판결하였다. 그것을 문제 삼은 아베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의 경제와 정부를 자신들의 발 앞에 꿇게 하기 위해서 반도체 핵심재료들에 대한 수출 제재를 선포했던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그런 핵심소재들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이었으며 상호간의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런 소재들을 개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그러한 한국의 약점을 노리고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핵심소재들을 한국에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베는 자신들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한국의 반도체 사업과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술수인 것이다.

아베와 일본각료들의 이 결정은 차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아베는 그 선전포고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작은 마음을 세계만방에 다 보여주고 말았다. 아베의 그 옹졸한 모략은 보통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고 뭔가 흘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아베의 마음을 그렇게 아둔하고 광박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다(출9:12). 그 동안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라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향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영혼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베의 마음을 강박케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경제는 당장 몇 년 동안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아베는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아베는 자승자박, 자신이

낸 죄에 스스로 묶일 것이고,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과 국가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며(눅13:5), 다른 사람과 국가를 존중하지 않고 악을 도모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며(삼상12:25), 다른 사람과 국가와 더불어 선한 일과 평화를 도모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이다(약3:13-18, 시10:2).

아베의 잔꾀가 방아쇠가 되어서 한국인의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할 것이다. 아베의 잔꾀로 말미암아 한국은 일본의 경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당당히 세계 일등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아베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미국의 시사지 'Foreign Policy'는 2012년 5월 17일 자에 Bruce Jones와 Thomas Wright 기자의 Meet the GUTS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들은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4대 강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https://foreignpolicy.com/2012/05/17/meet-the-guts/>). 아베의 도발로 말미암아 이 기사가 더 빠른 미래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dik0184@yahoo.com



월드미션대 OC상담심리대학원 ISF 세미나에서 송경화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내안의 나 만나기’ 주제

월드미션대 OC상담심리대학원 ISF 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OC상담심리대학원은 내면가족치료(ISF) 10주 코스 세미나를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내 안의 나 만나기’ 주제로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송경화 교수(

본교 교수, 클리어몬트한인교회 사모)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인도했다. 송경화 교수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다양한 성향의 파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특정한 파트

가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다중 인격장애에 빠지게 된다. 다중 인격장애는 우리 안의 여러 인격을 모두 장악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송 교수는 “우리안의 파트들이 적절히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며 “이를 위해 셀프리더십을 가져야 하는데 셀프가 리더십을 회복하게 되면 각 파트들을 돌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내면의 파트들은 셀프를 만나고 싶어 한다”며 “파트와 셀프가 많이 만날수록 내면이 풍요로워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2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열리며 10주코스 수료자는 본교 입학식 1학점이 인정된다. 자세한 것은 (213)388-10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제6회 한아름 합창단 연주회가 미주평안교회에서 개최됐다

멕시코 손도걸 선교사 후원

제 6회 한아름 합창단 연주회 성료

제 6회 한아름합창단(단장 최대홍 뮤직디렉터 이경호 목사) 연주회가 13일 오후 6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최대홍 단장은 “10여년간 합창 활동하면서 이번 연주회는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손도걸 선교사를 후원하게 돼 감사하다”며 “오늘 연주회가 청중들

과 단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주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베로니카황 한아름 여성합창단 총무 사회로 시작된 이날 연주회는 김옥선 한아름여성합창단 단장과 최재홍 한아름선교합창단 단장이 인사했으며 한정 목사(한아름 선교합창단 고문) 시작기도로 시작했다.

연주회는 소프라노 조은아, 한아름여성합창단(지휘 이해경), 베이스 이사효, 한아름남성합창단(지휘 이경호), 이해경과 조명준의 율건과 피아노 합주, 소프라노 김은혜가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이날 연주회는 운태한 목사(한아름선교합창단 고문) 축도로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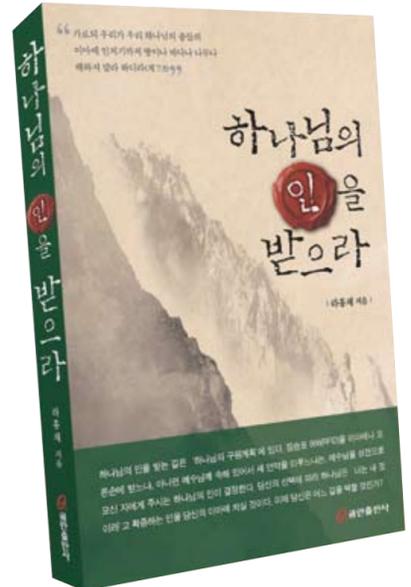
(박준호 기자)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욕교협 제 33대 이사회 정기총회

뉴욕교협 제 33대 이사회 정기총회가 11월 4일(월)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다. 이사회는 10월 21일 뉴욕교협 정기총회를 마치고 새 이사진을 선출하게 된다.

▲문의: (917)842-7552 손성대 이사장

살롱장로교회 연례부흥회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연례부흥회가 10월 25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영복 목사(의정부 사랑과평화의교회 담임).

▲문의: (704)877-6642

담임목사 청빙

뉴욕한인중앙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교(M.Div. 학위 이상)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및 가입 가능, 미국내 합법적 취업 가능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한국어 설교 및 영어구사 가능, 5년 이상 목회경험(부목사 포함)이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최근 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학위증명서(학부, 신학 대학원) 및 목사안수증명서 각 1부, 신앙고백 및 목회계획서, 목회자 2인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 요망), 최근 6개월내 설교동영상 2회분(CD/DVD/혹은 홈페이지 링크). 접수마감은 10월 31일.

▲문의: (201)407-9987(청빙위원장) 이메일: kccny2019@gmail.com

뉴욕목사회 정부회장 입후보 선거 공고

등록마감 11월 1일, 9일 입후보자 발표

뉴욕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가 오는 11월 15일(월) 열리는 제 회기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부회장 입후보 선거 공고를 했다.

일정은 △10월 22일(화): 입후보자 등록공고 △10월 30일(수)-11월 1일(금): 입후보자 등록기간 및 마감(오후 4시) △11월 6일(수): 입후보자 등록서류 심사 △11월 9일(토): 입후보자 발표 및 총회 공고

△11월 11일(월)-13일(수): 선거운동은 3일간이며 그 이후는 출마자 포함한 3인 이상의 모임은 금한다(접대, 금품, 향응, 단체모임 참여, 등록비 대납 등).

한편 뉴욕목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후보가 경선이 될 가능성을 두고 선관위(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입후보자 자격에 대한 추가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원정 기자>



예장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 제58회 추계정기노회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복음은 기교가 아닌 본질이다”

예장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 제58회 추계정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 제 58회 추계정기노회가 지난 14일 오후 4시부터 뉴욕선민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신입회원 4명이 가입돼 노회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창남 목사는 독립교단소속 뉴욕 사자교회 담임이며, 양은식 목사는 미주장신대를 졸업하고 올랜도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이성식 목사와 한지철 목사는 충남노회와 부산노회에서 이명됐다.

또 목사고시를 통과한 김승배 전도사에게 증서를 전달했다.

2019 하반기 재정은 수입 10,691달러, 지출 6,362달러, 잔액 4329달러로 보고했다.

이외에 △경조사비 운영권 △총회호칭 “백석”으로 △회원 자격 강화 △노회규칙 및 세칙 수정을 위한 수정위원회(위원장 한준희 목사) 조직 등을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노회장 김종철 목사 인도로 기도 서기 장규준 목사, 설교 노회장 주효식 목사, 감사기도 회계 한성은 목사, 축도 증경노회장 한준희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주효식 목사는 “복음은 기교

가 아닌 본질이다”(롬8:2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질에 충실하자”며 “우리가 힘들어도 목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방법론은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뤄진 뜻에 무작정 순종했기에 맨해튼 목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주 목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의해 운영되는 노회가 되지 않으며, 기교가 아닌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 노회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는 목사회원 49명이 소속돼 있으며 뉴욕시찰(시찰장 한준희 목사), 뉴저지시찰(홍지철 목사), 캐나다시찰(이승남 목사), 아틀란타시찰(김학식 목사), 필라델피아시찰(김준희 목사) 등 5개 시찰이 있다.

한편 지난 10월 7일부터 2박 3일간 덴버에서 열린 미주교협 대회에 동부노회에서 11명이 참석해 만남의 교제와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대회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한다고 보고했다.

<유원정 기자>

“복음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사수”

뉴욕구국기도회 및 시국강연, 발제 이희문 목사

뉴욕구국기도회 및 시국강연이 지난 10월 저녁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한국 인터넷신문 뉴스인포인트와 국가정보위원회(국정위), 민운동본부(국정본, 대표 주동식),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킹(대표 이희문 목사)이 주관하고 뉴욕에서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지회장 김명옥 목사)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홍종학), 뉴욕구국동지회 등이 협찬했다.

노기송 목사는 “오늘날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 자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고 개최이유를 설명했다.

1부는 예배로 2부는 시국강연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노기송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명 목사, 말씀선포 김명옥 목사, 특별기도(대한민국내 중북세력 축출, 김정은 정권 붕괴), 축도 주승욱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명옥 목사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요8:32)는 제목의 설

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시국을 판단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참 자유를 얻기 위해 좌파정권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해야 한다. 거짓 속에는 자유함과 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2부 시국강연은 주동식 대표 사자로 이희문 목사가 “한반도 주변정세와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으며 주동식 대표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 운동 상황에 대해 발제했다. 이희문 목사는 미국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북한문제 해결로 첫째, 힘의 균형을 위해 남한에도 핵 보유 둘째, 배라 뿌리기로 북한내부 갈등 유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주최측은 11월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12일에는 6.25참전 묘지서 링컨기념관까지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구국기도회 및 시국강연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PCA 뉴욕장신대학원 이사장 이은희 목사 취임 및 음악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일군배출”

KPCA 뉴욕장신대학원 이은희 이사장 취임 및 음악회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원)은 10월 13일 오후 5시 뉴저지 한무리교회(박상돈 목사)에서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 및 음악회를 열었다.

개교 41주년을 맞은 동신학교 20대 이사장 박맹준 목사가 임임하고 21대 이은희 목사가 첫 여성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은희 목사는 KPCA 첫 여성 노회장(동북노회)을 역임한 바 있다.

이은희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이사장에 취임하기까지 신

앙여정을 간증하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일군들이 배출되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전 이사장이 학교건물을 마련하고 터전을 마련했다면, 이제 임기동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종들이 깨닫는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가 더욱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1부 예배는 인도 이상훈 목사, 찬양인도 김명민 전도사(푸른하늘교회 찬양팀), 기도 박진수 장로(부이사장), 특송 뉴욕장신학우 찬양팀, 설교 서정운 목사(전 장신대 총장), 취임사 이은희 목사, 축사 최명태 목사(동북노회 서기)와 정창문 목사(뉴저지노회 부노회장), 직전 이사장에게 감사패 증정, 축도 서정운 목사, 광고 구정모 목사(기록이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음악회는 소프라노 고혜순, 바리톤 양근식, 피아니스트 정성현, 기타리스트 김명민, 피아니스트 조이스 양 등이 출연했다.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이은희 목사, 학장 이기백 목사, 부이사장 박진수 장로, 회계이사 구정모 목사, 서기이사 이상훈 목사, 재무이사 정선희 목사 등으로 구성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오직 예수’가 필요하다.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잘 살아도 예수 못살아도 예수, 성공해도 예수 성공 못해도 예수다. 예수가 내 삶의 모토가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오직 예수”를 외쳤다.

박종순 목사는 △11일(금) 저녁 8시30분, “오직 예수”(마 17:1-8) △12일(토) 새벽 5시 15분, “시험받고 응답받고”(마 15:21-28) △12일(토) 저녁 8시30분, “교회다움”(렘4:11-16) △13일(주일) 오전 9시, 11시, “손바닥에 새겼다”(사 49:14-19)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 가을수양회 참석자들이 첫날 저녁 박성일 목사(앞줄 가운데) 강의를 듣고 기념촬영 했다.

“Confessing Christ” 강사 박성일 목사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 가을수양회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회장 구자범 목사) 2019년 가을 수양회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뉴저지 서머셋에 있는 Fair Bridge Hotel & Conference Center에서 열린 금번 수양회에는 부부동반으로 50여 명이 참석해 동문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강사 박성일 목사(필라델

피아 기쁨의교회 담임, Ph.D)의 강의를 들으며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박성일 목사는 “Confessing Christ”를 주제로 이틀간 강의했다. 7일 저녁에는 “사도들의 신앙고백”이란 제목으로, 8일 오전에는 “Jesus according to C. S. Lewis”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의를 했다.

(기사제공: 총신대원미동부동문회)



뉴욕예일장로교회 가을심령부흥회에서 박종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오직 예수” 강사 박종순 목사

뉴욕예일장로교회 가을심령부흥회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 가을 심령부흥회가 10월 11일부터 3일간 박종순 목사(총신교회 원로)를 강사로 열렸다. 박종순 목사는 은퇴후 한 국교회지도자센터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열린 부흥회 첫날 저녁 집회에서 박종순 목사는 마태복음 17:1-8을 본문으로 주제 설교를 했다.

박 목사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 그래서



퀸즈장로교회 가을 건축바자회 성황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매년 봄 가을로 개최하는 바자회가 올 가을에는 건축바자회로 지난 10월 5일 열렸다.

은 교우들의 관심과 정성으로 준비되는 바자회를 통해 여림 단기선교 기금을 조성해왔으나, 올해는 다민족회중을 위

한 건축을 앞두고 건축기금 후원으로 10만 여 달러를 모금했다.

사건은 바자회가 열린 본관 파킹랏. 앞쪽은 러시아회중이 할당받은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다.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 제 18회 갈라 성황

패밀리터치(원장 정성숙 목사) 제 18회 갈라(Funderasing Gala)가 10월 3일 저녁 6시 30분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돼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11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작품 판매도 함께 이뤄졌다.

패밀리터치는 지난 2001년 설립된 이래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이뤄 나간다는 설립 이념을 꾸준히 실천해왔으며,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부부행복학교’, ‘

사랑의 대화학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민 가정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모금이 이뤄졌다고 감사했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교회 밖 제자’로 훈련하는 삶 바꾸기

목회자멘토링 인대인 세미나, 박광리, 김민정, 진영훈 강사



목회자멘토링 인대인세미나가 남가주동신교회와 선한정지교회 공동주최로 선한정지교회에서 개최됐다



LA머무는교회 설립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우측은 김문수 목사 부부(우측)과 이날 장로로 취임한 최재섭 장로 부부(좌측)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 잘 감당”

LA머무는교회 설립감사 및 장로취임 예배

LA머무는교회(담임 김문수 목사) 설립감사예배 및 취임예배가 13일 오후 4시 미주중앙 배가 내 갤러리에서 가졌다.

김문수 목사는 “공동체 통해 인정을 받아들이고 설립예배를 통해 공포하고 시무장으로 취임을 갖게 됐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2개월 짧은 시간 내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과거 흔적 속에서 에벤에셀 하나님, 하루하루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귀한 자리 통해 하나님 함께하심을 목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인지 모른다. 앞으로 머무는교회 담임으로 맡겨주신 뜻에 따라 눈을 멀리보고 머리는 냉철하게 판단하며 가슴은 뜨거움으로 모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싶다”며 말씀 속에서 잘 세워져 갈수 있게 기도를 부탁했다.

김문수 목사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유연주 목사(큰목양교회)가 대표 기도했으며 스테이싱어즈가 특송한 후 김영렬 목사(가주은혜교회, 예장합동 해외총회장)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6-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현근 안수집사가 설립경과 보고했으며 김영렬 목사가 설립공포, 김문수 담임목사가 인사했다.

담임목사 집례로 시무장로 취임식을 가졌으며 최재섭 집사가 장로로 취임하고 취임예배가 증명됐다. 최재섭 장로는 “두 달여간 준비위원들은 매주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이 시작했는데 원하는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찬양드릴 수밖에 없다. 머무는교회는 인간들의 생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 뜻과 성경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 앞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환 목사의 축가와 명종남 목사(한길교회)의 축사, 김영렬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LA머무는교회는 지난 8월 3일 27명이 최재섭 장로 가정에서 정기모임을 가졌으며 8일 오전 11시 중앙일보 106호에서 32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다. 투표를 통해 하나님과 눈과 마음이 머무는 의미로 교회이름을 머무는교회(Stay Church)로 정했으며 14일 주정부 등록허가를 받았다. 15일 공동총회에서 전원일치로 김문수 목사를 담임목사로 추대했으며 최재섭 집사를 시무장으로 선출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와 선한정지교회(담임 송병주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목회자멘토링 세미나가 8일 오전 9시 30분 선한정지교회에서 열렸다.

‘교회 밖 제자’로 훈련하는 ‘인대인 삶 바꾸기’ 세미나로 진행된 이날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는 박광리 목사(우리는교회), 김민정 목사(좋은목회연구소 대표), 진영훈 목사(링컨시티한인교회)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인도했다.

박광리 목사는 “‘인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며 앞의 인은 예수 믿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뒤의 인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복음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닌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문제는 영적비만 성도가 많다는 것이다.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 은혜를 받는 이유는 자기 혹은 가족 나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용도의 은혜다.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는 나

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목사는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를 보면 교회 시스템에 새가족부가 있지만 사역이 잘 되지 않는 교회, 교육파트와 돌봄 파트가 온전하게 있지만 성도들의 변화가 잘 안 되는 교회들을 보게 된다”며 “교회는 성도들이 바뀌어야 새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의 양육시스템이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교재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양육교재가 가져야 할 조건은 이론과 실재가 함께 결합되고 있는 것과 이에 대한 것이 현장에서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훈 목사는 “교회는 시스템보다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배에서 감격과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인대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경청”이라 말하며 “인대인의 핵심은 행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며 매일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놓고 소그룹화 하며 ‘삶을 바꿔보자’라는 것이 인대인이 추구하는바”라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김미선 GCC 대표

선교사 휴식처 GCC 건립 후원음악회

11월 3일 노스리지 연합감리교회에서

글로리크리스천센터(Glory Christian Center, 대표 김미선 교수, 이하 GCC)가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위한 후원음악회가 오는 11월 3일(주일) 오후 4시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다.

“드림 투 드림(Dream to Dream)”이란 주제로 열리는 후원음악회는 지난 9월 8일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에 열린데 이어 두 번째로 갖는 것이다.

김미선 대표는 “초교과로 운영하며 온 삶을 드려 헌신하고 있는 현역 선교사들이 안식과 쉼을 얻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GCC를 건립하려고 한다”며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후원음악회는 수준 높은 음악인들의 무대를 통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되

는 공연을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GCC 역시 현역선교사들의 쉼을 통해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설명했다.

콘서트는 오르간연주자 이호준 박사, 하프연주자 그레이스 흥, 바이올리니스트 권대술, 소프라노 제이미김, 테너 전승철, 마림바 연주자 크리스티나 천, 피아니스트 제키구, 재인양, 벨리연합감리교회 할렐루야찬양대(지휘 김미선 교수)가 출연해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된다.

GCC후원에 대한 문의는 (213)369-3861(USA), Kakao Talk ID: pilgrim01, 이메일: genesismusic2000@gmail.com으로 할 수 있으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나성영락교회 온세대를 위한 집회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온세대를 위한 집회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최정도 목사(주사랑교회)이며 일정은 18일(금) 저녁 7시30분, 19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20일(주일) 1-4부 예배시간.

▲문의: (323)227-1400

샌디에고 소망교회 장로장립식

샌디에고 소망교회(담임 이창후 목사)는 장로장립식을 20일(주일) 3부 예배시간(오전 11시)에 갖는다.

▲문의: (858)292-0999, 614-1688

뮤지컬 배우 양준모 콘서트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뮤지컬 배우 양준모 콘서트를 ‘삶과 노래 그리고 신앙’이라는 주제로 25일(금) 저녁 8시에 개최한다.

▲문의: (909)591-6500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장학생 선발

어스틴한인장로교회가 기독교 청년 인재발굴과 학업지원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대상은 일반대학/대학원생 또는 신학대학/대학원생으로, 제출서류는 △신청서 (https://www.akpc.org/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성적증명서 △학업 및 진로 목적과 장학금 신청 사유서(한글 또는 영문 가능)이다. 접수마감은 오는 27일(주일) 오후 2시. 접수는 이메일: akpc.scholarship@gmail.com, 방문 또는 우편 접수: AKPC 장학위원회, 12311 Natures Bend, Austin, TX78753.

▲문의: akpc.scholarship@gmail.com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2019 찬양의 잔치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치유와 회복과 영혼의 감동이 있는’ 2019 찬양의잔치가 20일(주일) 오후 6시에 개최한다.

▲문의: (714)893-1652

제 16회 포스선교음악회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는 제 16회 포스선교음악회를 19일(토) 저녁 7시, Saint Mark's Episcopal Church(주소: 600 Colorado ave, Palo Alto, CA 94306)에서 갖는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후원금은 AMASE-Academy of Music and Arts for Special Education 장에 학생들을 위한 음악 도구를 악기 구입을 위해 사용된다.

▲문의: (408)263-5100

미주장로회신학대 개교 42주년 후원의 밤

미주장신대(총장 이상명 박사) 후원의 밤이 11월 4일(월) 저녁 6시 30분 나성영락교회 새교육관 채플에서 열린다.

▲문의: (562)926-1023

열방을 향한 선교전략과 기도성회

KIMNET 선교단체가 주최하고 은혜한인교회가 주관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키팅 비전’이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호성기 목사(필라 안디옥교회), 이성철 목사(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선교부흥회 강사로 서며 29일(화) 주제 강의 강사는 조갑진 목사, 진유철 목사, 허연행 목사, 임현수 목사, 박바울 선교사, 30일 박희민 목사, 윤모세 목사, 오석환 목사, 정민용 목사가 각각 강의를 맡는다.

▲문의: (714)451-8670

생터사역원LA 제2기 전강스쿨 졸업식

생터사역원(어? 성경이 읽히지않네/대표 이애실 사모) LA지부(지부장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담임)는 오는 11월 9일(토) 오후 4시 하늘소망교회에서 제 2기 전문강사스쿨 졸업식을 갖는다.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전강스쿨을 마친 이들은 생터사역원 전문강사 자격을 얻게 된다.

▲문의: (213)500-2948

‘여러분 죽음준비 되셨습니까?’ 주제

소망소사이어티 2019 소망컨퍼런스 열어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2019 소망컨퍼런스를 ‘여러분 죽음준비 되셨습니까?’ 주제로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2007년 소망소사이어티를 창립한 이래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죽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죽음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으며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닌 준비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누구나 아름답게 살기 원하고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마지막까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철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된 컨퍼런스 개회식은 소망소사이어티 홍보영상이 소개됐으며 아르모니아 싱어스가 특송, 한기홍 목사 기도, 유분자 이사장 환영사로 이어졌다.

이어 유경 사회복지사가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위크샵으로 이어져 말콤딕 박사(UCI MIND)가 ‘알츠하이머로부터 건강한 뇌 지키기’, 배키로마카(Grief Support and Education 디렉터)가 ‘장례준비’, 박혜수 고문(소망소사이어티 샌디에고 지부)이 ‘죽음준비 교육(소망유언서 및 카드케임)’, 전해정 교수(아주사퍼시



소망소사이어티주최 2019 소망컨퍼런스에서 말콤딕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Gloria Excerpts..Spirituals and Gospel

남가주연세콰이어 제14회 정기연주회

남가주연세콰이어(단장 이상은, 지휘 이정욱) 제 14회 정기연주회가 5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에서 열렸다.

남상국 목사(연복회 회장) 기도로 시작된 이날 연주회는 Gloria Excerpts from Major Works, Spirituals and Gospel이란 주제로 성가곡을 불렀으며 한국가곡을 불렀다.

또한 부지휘자 안재숙 지휘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오직 주의 은혜’로 등을 불렀으며 소프라노 김우영과 엘토 임선미가 ‘넬라판타지아’와 ‘신아리랑’을 불렀다.

이날 본교 동문 테너 채혁 씨가 특별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으로 이날 연주회를 더욱 빛내 주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 연세콰이어 제14회 정기연주회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예배를 바로 세워 거룩한 대한민국 초석 쌓자”

10주년 ‘홀리위크’ 행사, 서울광장서 대단원의 막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의 서울광장에 찬양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촛불 모양의 작은 전등을 손에 들고 무대 위에 놓인 십자가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이곳에 모인 1000여명의 청년 학생 노인 등은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다. 이들은 마음을 모아 국가적 차원의 예배와 진정한 신앙의 회복, 나라와 민족,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했다.

13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19 홀리위크(Holy Week)' 집회 현장이다. '홀리위크'는 2010년 이름 없는 소수의 청년들이 모여 일주일 동안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작됐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의 주제는 '예배만이 살길이다'로 정했다. 행사는 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 홀리위크미네스트리 코리아투게더 저서스무브먼트 CMTV 등이 주관했다.

최상일 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 대표는 “한국사회와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요즘,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예배를 바로 세워간다면 하나님은 지금의 위기를

역전시켜주실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행사는 지난 7일 대전 충남대에서 '홀리위크 청년콘퍼런스'를 개최하며 막을 올렸다. 이후 문화사역 콘퍼런스, 연합찬양 집회 등을 거쳐 이날 오후 3시 마지막으로 서울광장에 모였다. 주회 측은 각종 기독교 문화 체험 행사와 예배를 준비해 한국교회와 다음세대의 회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은 중·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와 은정감리교회 등 각 교회가 마련한 부스를 방문하며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CCM 경연대회인 '위 틴스(We Teens) 페스티벌'도 진행됐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전국 8개 워십팀의 찬양 소리가 서울광장 일대에 울려 퍼졌다. 황인준 등중제일교회 목사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15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찬양팀을 이끌고 본선에 참가했다. 황 목사는 “헬라어로 열매란 뜻을 지닌 '카르포

스' 찬양팀과 함께 수개월 동안 찬양과 위십을 준비해 왔다”면서 “경연 결과를 떠나 함께 예배드리고 행사에도 참여하니 아이들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모든 세대의 예배란 의미를 담은 '위(WE)·페스티벌'도 진행됐다. 박동찬(일산광림교회) 목사는 “복음”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놀라운 역사를 이룬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면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원한다”고 전했다. 한기재(중앙성결교회) 목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서울광장뿐 아니라 삶의 모든 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성소로 만들길 바란다”며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주문했다. 황덕영(새중앙교회) 목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뿐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부흥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권면했다. 성도들은 설교가 끝날 때마다 이 땅의 복음과 거룩, 부흥을 놓고 한목소리로 기도했다.

성희롱적 발언 A교수 관련 사과문 발표

이재서 총신대 총장 “충격과 함께 경악 금치 못해..”

이재서 총신대 총장이 최근 신학과 A교수가 강의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11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총장은 “총신대가 새로운 도약과 정상화의 길을 가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펼쳐가는 중에 발생한 한 교수의 엄청난 성희롱적 발언에 충격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으로서 해당 학생과 수업을 함께 들었던 학우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교단 지도자와 성도,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해서도 신학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지 못한 데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조사위원회를 통

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징계위원회를 가동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런 일을 계기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총신대가 사람을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진정성 있는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교수는 지난 4일 수업 도중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언급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7일 총신대 신학과 대외위원회가 해당 발언을 대자보로 공개하면서 학내 공론화

됐고 하루 뒤인 8일 A교수가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사과에 진정성이 없으며 해명에 불과하다”는 학생들의 비판이 쏟아지며 논란을 키웠다.

결국 10일 두 번째 게재한 사과문에서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제 허물임을 인정하며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겠다. 총신대 모든 학생들에게 사과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총신대 총학생회는 이사회와 총장에게 “학생들과 공식적 소통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도덕성 검증을 통해 인물을 선별한 후 업무 권한을 부여하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목회자 이승희 목사, 교육자 장충식 장로

제16회 홀리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

사단법인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가 10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성령센터 황희자홀에서 성령역사를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받는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을 개최했다.

심사위원장 소강석 목사,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이사장 안준배 목사는 목회자 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당회장), 교육자 장충식 장로(단국대학교 이사장)를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은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의 사회로 테너 박주

욱 교수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서울장신대 전 총장 문성모 목사가 기도하고 심사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창세기 4:16-17, 25-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를 위해 성을 쌓았는가”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소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숨을 앓고 신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을 쌓자”고 말했다.

이어서 이사장 안준배 목사의 선정보고가 있었다. 시상 후

수상 이말테 교수, 박명수 교수, 함동근 목사의 축사와 김용완 목사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본 상은 해당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성령의 사람들에 시상하고자 제정됐다. 김진주 목사를 통해 발현된 1907년 성령운동을 계승해 한국교회 정체성을 세우며 기여하고자 상의 명칭을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The Holy Spirit's Man Medallion)으로 정하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했다. 그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전승되고, 단순한 지식을 넘어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웨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민족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정과 기관과 정부까지, 웨마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정성을 발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유대인처럼, 우리 기독교에도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절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장이 굳게 서야 한국교회가 산다”

기독교지도자협, 2019년 교단장·총무 취임감사에예배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기지협) 주최 ‘2019년 교단장·총무 사무총장 취임감사에예배’가 10일 오전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웨신, 개혁, 연합성 등 올해 선출된 기지협 소속 50개 교단 총회장과 총무 및 사무총장을 초청, 격려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이 단체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의 사회로 예장통합 전 총회장 최병두 목사가 ‘위대한 지도자 다윗’(사무엘하 2:1-7)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축하 드린다”며 “기도하고 신의있고 존경받는 한국교회 지도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기지협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인사말에서 “국가와 한국교회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일과 위선의 자리에서 일어나 도덕성과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병들고 침체된 한국교회의 개혁운동이 시급히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예배에는 청와대 감지영 행정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백중현 총무관, 김진호 한창영 이응규 배대선 한동철 김병은

목사, 최공열 장로 등이 참석해 순서를 맡았다.

또 ‘신임 교단장과 총무 사명감당을 위해’ 박정근 목사가, ‘나라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해철 목사가,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 엄신형 목사가, ‘북한동포의 해방과 핵폐기를 위해’ 조병창 목사가 각각 특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 단체 상임고문 서기행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총회장이 굳게 서야 한국교회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교단이

한교총·CCC, 한국교회사역 확대위해 MOU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과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 박성민)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 사무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회의 사명과 한국교회의 사역확대를 위해 상호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대표회장과 박성민 대표, 신평식 한교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한국교회의 명예와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며 사역의 목적과 방법을 서로 이해하고 양 기관의 규정과 전통, 역할을 존중한다

돼 달라”고 당부했다.

지덕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 초청을 받으면 국민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이야기를 꼭 해 달라. 그게 진정한 교회 지도자”라고 주문했다.

신임 교단장 대표인사를 한 김중준(예장 합동 총회장) 목사는 “요즘 반(反) 기독교적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인다”며 “특히 이 나라가 이념적으로 두 동강이 났다. 교회의 역할이 크다. 진리와 싸워 한국교회를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예장 개혁 총회장 정학재 목사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총회장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는 내용이 담겼다.

한교총은 CCC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을 회원 교단들과 함께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표회장은 “한국의 대표적 대학생선교단체 CCC와 한교총이 협약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학생선교사역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교총과 협력해 CCC의 선교 전략과 사역 비결을 한국교회와 공유하겠다”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신천지공개토론회의 요구에

신천지포항·이만희 교주 측 불응”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한동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포항노회 및 포항남노회 이단사이비공동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포항신천지공개토론회의(공동대표 김영길 장의환 장순홍)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과 이만희 교주에게 공개토론회를 요구했으나 신천지 측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신천지포항과 이만희 측에 공개토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수차례 보냈으나 응하지 않다”면서 “이만희(신천지)는 다시는 공개토론회에 대

한 왜곡된 주장을 하지 말고, 거짓으로 만들어진 홍보물로 사람들을 기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가 신천지와 공개토론회를 피하고있다고 주장해왔다.

신천지 피해자인 최미숙씨는 지난 5월 신천지포항 측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 최씨의 사연을 접한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는 한동대 및 포항노회, 포항남노회 이단사이비공동대책위와 뜻을 모아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6월 26일 신천지포항 측에 성경 해석 등 11개 주제를 놓고 공개토론회를 하자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

만 신천지포항 측은 “협의회를 신뢰할 수 없고 최씨를 대리인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토론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협의회는 이후 신천지 측에 협의회의 대표성을 증명하는 한편, 이 교주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신천지는 지난 10일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이 공개토론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협의회 측은 전했다.

협의회는 “신천지가 공개토론회에 응하지 않는 것은 성경과 진리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포항시민들에게 신천지 피해 사례와 공개토론회를 회피하는 신천지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언제라도 신천지 교주 이씨가 공개토론회에 응한다면 성실히 협의를 거쳐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구출·보호’ 통일소망선교회

10주년 감사예배·통일소망의 밤

통일소망선교회(대표 이빌립)는 13일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대결교회(박현식 목사)에서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통일소망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간증, 탈북가수 강은정 자매의 찬

양을 진행했다.

이 단체 이빌립 대표는 “지난 10년의 통일소망선교회를 돌아보며 앞으로 10년을 새롭게 소망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통일소망선교회는 그동안 탈북자 1400여명을 구출해 하나

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기독교 선교단체다.

중국 내 탈북자와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 양육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또 탈북자 미션홈 사역, 하나원 사역, 미자립 탈북자를 돕는 예수제자원 사역, 서울역통일광장기도회, 북한선교회, 선교사훈련원 운영 등이 이 단체의 주요 사역이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성찰하라...수습안은 징계 성격”

김태영 총회장, 채영남 수습전권위원장 긴급권고서신 발표

예장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십자가 화해의 정진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의 ‘긴급 권고서신’을 발표했다.

이는 명성교회가 감삼환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고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세우는 등 수습안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새문안교회 등 일선 교회에서 총회 수습안 철회 청원이 발표되는 등의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신에서는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 양측을 향해 “총회 결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일을 피하라”며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는 주요사항을 결의하기 전에 수습전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의견을 조율

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도 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거세게 항의하며 총회 결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측은 항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성찰하라”고 전했다.

또 “후속 마무리를 위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모이게 된다. 만일 수습전권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이를 거부한 쪽에 있음을 명심하라”며 “총회가 하나 되어 한국교회의 거울을 헤쳐 나가도록, 힘써 기도해 달라”고 했다.

명성교회를 향해서는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일종의 징계 성격을 갖고 있다. 총회재판

국 재심 판결에 따라,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가 취소되고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야 한다”며 “이 기간에 설교목사로 강단에 서는 일 없이,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장로들이 1년간 상회(노회와 총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대형교회로서 한국교회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지속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의미”라고도 했다.

천명성 측 서울동남노회에 대해서는 “외견상 수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으나, 노회원 55% 출석으로 임원을 구성하고 여전히 절반 가깝게 노회에 불참하고 있다”며 “김수원 목사는 부노회장을 지냈으니, 그를 노회장으로 추대해 양측이 참여하는 완전한 노회를 이루라는 뜻”이라고 했다.

“우울증과 영적 치유” ④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왜곡된 사고는 우리의 죄성이나 영적 무지, 혹은 반항심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많은 이유를 살펴보면, 1)우리의 비논리적인 사고 2)사람이나 상황의 이해 결여 3)영적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볼 능력의 부족 4)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이기심과 반항심 5)성경 말씀의 지식 결여 6)상식의 결여 등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면, 악마는 더 왜곡시킬 수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더욱 많은 영향을 끼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알아야 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가족 영향: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와 함께 했었고, 이브와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이브가 잘못하는 것을 고쳐주거나 막지 못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다.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오히려 고통과 혼란을 가져

오며 이는 바로 본질적으로 왜곡된 사고이다. 아담과 이브는 순종의 시험에 실패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악마의 파괴적인 달콤한 소리에 귀 기울였다.

악마: 우리가 마음속에 들리는 모든 부정적인 소리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평가 절하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내면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자기가 생각인 아닌데 ‘너는 잘못하고 있다’ 하는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때는 마귀가 주는 음성이라 판단해도 좋다.

성경에서 마귀는 고발자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계 12:10).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그 뜻을 왜곡시킨 마귀에

게 시험을 당하셨다. 마귀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부추겼고, 천사가 구할 것이라며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눅4:12).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알고 왜곡되게 인용하는 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마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알고 있어서 이를 왜곡하여 우리의 죄성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든다.

마귀의 거짓에 속은 사람은 자신과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들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대적하여 싸우면 영적 전쟁

고 있는 모든 문화 가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가치 있는 좋은 문화가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는 선하고 자 하는 염원과 다른 사람에게 잘 해주고 싶은 염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왜곡된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종류의 편견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무례함이 색깔, 성별이나 나이든지 어떠한 형태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가치에 어긋난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에 따라 모든 사람들

요소도 우리의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영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 또한 그들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타인: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서 듣는 말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유감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을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잘못된 가치와 사고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바울은 이것에 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 시절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오만 한다고 믿어서 수많은 비난을 만들어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몰아넣었다. 죄없이 순수한 사람을 비난하며 거짓말하는 것은 죄다. 성경 말씀을 빗대든지 아니 대든지 죄악된 생각이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려 성경을 사용하지만 온전한 진리가 가르치기를 소홀히 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해와 율법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눅11:42).

바울 사도는 이에 덧붙인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모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골 2:8).

왜곡된 논리적 사고에서 치유된다는 것은 우리를 속인 곳을 찾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며, 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장 고통에서 놓임 받지 못하여 낙담치 말아야 한다. 영적 치유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영적이다. 이 일은 사고력과 목상을 해야 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 뒤뜰된 사고를 하며 사는 것은 고통과 불행만 초래한다.

yonghui.mcdonald@gmail.com

왜곡된 사고는 죄성, 영적 무지, 반항심에서 시작돼 치유는 속인 곳 찾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과정

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마귀는 아직도 그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할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비논리적인 사고의 씨를 심어 놓아서 의심케 하고 진실을 왜곡하도록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마귀는 아직도 똑같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 상처받게 하고 죽이려 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순간순간 끊임없는 영적전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예비해두고 계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 우리가 가치

귀하고 동일하게 만드셨지만,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자신을 높인다. 그런 죄악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서로의 소중함을 배워야 한다.

미디어: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조심을 기해야 한다. 미디어는 사람들이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좋은 예이다. 만일 미디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기본을 갖추고 있다면 도덕심을 쌓아가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가치는 왜곡된 가치일 수 있다. 음악, 책, 예술과 다른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고전 15:33-34).

종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지만, 왜곡된 사고가 얼마나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반영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최악된 생활방식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할 때 부분적인 진리는 우리를 해칠 수 있다. 다른 신자들이 갖는 가치나 심지어 종교 지도자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배운다!

〈2면에서 계속〉
아들이 어렸을 때처럼 내 역할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하나님께 함께하셨던 나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이고, 아들이 아들만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아들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없을 때
(When I Can't Calm My Son's Fears, A Small Talk guest post about fear and peace by Micha Boyett)

이번 여름 ‘The Highly Sensitive Person(매우 민감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친구가 추천한 책이다.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 느낌은 나의 영적 은사라고 자주 농담하곤 한다.

어쩔 땐 느낌이 사람을 울게 할 수 있다. 내게 민감함은 저주와 축복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나의 예민한 성향은 나를 작가로 만든 보배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내 마음을 폭풍 같은 불안으로 폭발하

게 하는 다이너마이트가 되기도 한다. 이 둘 사이를 언제나 오락가락하게 한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나 자신에 대해 안다는 것이 내 아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깊이 있게 설명해주는지 알지 못했다. 첫째 아들은 민감한 아이에 대해 내가 읽은 모든 묘사에 해당될 만큼 아주 민감한 아이다. 이 아이의 마음은 풍부한 언어 능력과 통찰력으로 가득해서 매사를 아주 깊이 느끼고, 자주 울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끔찍한 악몽을 꾸고, 걱정한다. 이 아이는 늘 걱정이 많다.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시기마다 강박증과 염려가 있었다. 아이가 화산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던 3살 때는 화산의 폭발로 한 순간에 멸망한 폼페이에 대해 어른의 축소판처럼 막힘없는 설명을 늘어놓았다. 이 시기에는 아들의 두려움이 지식에 대한 사랑과 함께 적절하게 발달했다.

지난 가을 유치원 수업으로 지진 대비훈련을 받은 후, 아들은 화산을 지진으로 대체했다. 한 달 동안 아이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커져서 야간공포증에 시달렸고 밤마다 우리를 깨웠다.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 밤 새벽 3시에 일어나 울면서



지진 이야기를 했다. 남편과 나는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우리는 이렇게 속삭여줬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어, 엄마와 아빠도 여기 있단다. 우리는 항상 너를 돌보고 있고, 네 곁에서 자고 있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내가 안전하기를 바라신단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살아. 우리는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현실을 피할 수 없어.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건 아주 큰 사건이 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어.”

나는 이 말 외에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지 모르겠다.

지난달에는 소방훈련이 있었다. 지금 1학년이 된 아들은 학교교당에서 행동을 멈추고 바닥에 몸을 낮추어 구르기를 하는 법을 배웠다. 또 아이는 바닥을

바로 기어가는 법을 배웠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아들은 집에 와서 자기가 올라갔던 소방차와 고학년 학생들이 공연했던 우스꽝스러운 촌극과, 제대로 작동되는 화재경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에게 설명해주었다.

이틀 후에 악몽이 시작됐다. 아들은 어두움 속에서 나에게 두려움을 호소했다. “엄마, 화재경보기가 꺼져있으면 어떡해요? 엄마랑 아빠가 우리한테 올 수 없을 땐 어떡해요? 엄마, 화재경보기가 꺼져있는데 저는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진짜 화재면 어떡해요?” 어떤 설명을 해주어도 통하지 않았다. 우리의 대화는 뱅글뱅글 돌았다. 아들은 점점 더 불안해했다. 때때로 자식을 키우다보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대화는 뱅글뱅글 돌아서 어떤 결론도 이끌어 낼 수 없는 이런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나 역시 아주 예민한 아이였

다. 나 역시 두려움이 많았다. 나의 두려움은 아무도 모르는 환영과 환영 속에서 나타났다. 밤에 내 침대는 가시가 자라나 따가웠고 그것이 현실이 아니지만 여전히 따갑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고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리고 내 귀에 드림소리가 더 커지고 박자가 더 빨라지더니 외로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결코 내 침대에서 안식을 찾을 수 없었던, 두려움에 몸서리치던 그 무서운 밤에 내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내 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충동을 느끼지만, 그러한 순간들을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화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의 진실을 안다. 이곳은 위험한 장소다. 이곳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아는 진리를 말해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한 밤중에 아들의 침대에 몸을 구부리고 속삭인다. “네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전쟁의 반대가 뭔지 아니?

평안이란다.” 그리고 시편 4편의 말씀으로 기도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는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더 차지하려고 ‘감사하는 나’와 ‘두려워하는 나’가 싸우는 모든 전쟁을 알고 있는 엄마다. 나는 내 어린 아이에게 모든 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의 반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평안, 평안, 또 평안이다.

때때로 우리 아이들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대화는 우리에게 할 말이 남아있지 않을 때다. 아이들이 우리의 완벽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외에 어떤 말도 필요치 않다고 느낄 때 주셨던 이 말씀을 되뇌는다.

나는 할 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머리에 폭풍우가 일어나는 침대 옆에 조용히 서 있다. 이 세상은 힘들고, 아이를 기르는 일도 힘들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어두운 방에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 어린 아들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지구촌 비상사태 ...

으로 체포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뉴욕에서 체포된 약 70명을 포함한다.

지난 6월 뉴욕의 시위 참가자들은 뉴욕의 교통을 차단했고, 독일의 시위자들은 메르켈 총리의 집무실 근처에 본인들을 쇠사슬로 묶기도 했다. 파리 경찰은 시위자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최루액(페퍼 스프레이)을 사용하기도 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트위터에 불만을 토로한 운전자들이나 신문 기고자 등 ‘멸종

저항’의 전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멸종 저항’의 지지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휴일을 망치고 잠재적인 지지자들을 오히려 소외시키는 “환경 광신도”로 비난받곤 한다.

크레시다 닉 영국 경찰총장은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약 750만 파운드에 달하는 예산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멸종 저항’은 시위 때문에 화가 난다면 “생태학적 기후 변화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반론한다.

이들은 시위대가 창문을 깨뜨리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옹호했다. 이러한 전략이 때때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누군가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멸종 저항’ 지지자들은 누구인가?

설문조사 기관 유고브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젊은 층의 사람들이 더 멸종 저항의 환경 운동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에서 24세 응답자 중 47%가 ‘멸종 저항’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등 도시점거 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하거나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유고브는 밝혔다. 이는 36%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50세-65세의 응답자들과 28%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65세 이상 응답자들과 비교된다.

또한 ‘멸종저항’은 여배우 엠마 톰슨과 정치인 다이앤 애보트와 케롤라인 루카스, 라디오헤드, 매시브 어택 등과 같은 유명인사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기독교 명저...

(8면에서 계속)

여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진 인물로서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을

이끄는 용감하고 카리스마적인 군대지휘관과 탁월한 웅변가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천국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패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탄이 타락한 동역자 천사들 무리 앞에서 행하는 연설은 탁월한 무용과 위엄과 함께 뜨거운 열정을 아울러 지닌 고대 서사시의 영웅으로서 그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밀턴은 사탄의 연설 바로 뒤에 “고통 속에서도 자랑스럽게, 그러나 깊은 절망에 애태우며”라고 사탄의 고통과 절망에 대해 언급한다. 이로서 그는 사탄의 내면의 고통을 초점을 맞추어 독자로서 하여금 사탄의 길로 드러난 영웅적인 모습과 함께 내면적인 절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8)영적 전투

이 작품은 선과 악 사이의 영적, 도덕적 전투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영문학에서 가장 강력한 실례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전투는 전체 이야기를 구성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천사와 선인들)들이 같은 편이다. 다른 한 편은 사탄(마귀)과 악인들이다. 천국은 지옥과 반대되고 빛은 어둠과 반대된다. 천사가 행한 것이든 인간들이 행한 것이든 선한 행위들은 악한 행위들과 대비되고 있다. 이 작품은 이 지배적인 영적 전투에 대한 크고 작은 세부묘사로 가득 차 있다.

younsuklee@hotmail.com

선교 편지 아르헨티나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님들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9월 21일은 봄의 날입니다. 나무들마다 푸르른 작은 잎사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생명들이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며, 여름이 되면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무들은 열매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 위에도 올 한 해 아름다운 생명들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소원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선교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인 퍼스펙티브스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은 박성흠 선교사가 4개 지역을 순회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바릴로체 (1600km), 엘바제-네우겐 (1200km), 멘도사(1100km) 그리고 로사리오(300km) 지역에서 약 160여 명의 학생들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2개월 후면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귀한 아르헨티나의 선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8월 9일 개강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간 세미나도 약 4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디나목회신학원 현지인 목회자 심방과 선교 집회들 주춧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약 4년 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릴로체 퍼스펙티브스 세미나를 마치고 그 다음 토요일

일 세미나가 근교 도시인 네오켄(바릴로체에서는 약 400km, 부에노스에서는 약 1200km)에서 계획되어 있어, 그 한 주를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역을 순회 심방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릴로체를 출발하여 버스로 볼손(120km), 다시 에스켈(170km)에 도착하여 목회자들 방문과 레오나르도 목사와 안또니오 목사 교회에서 일일 선교집회,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프렐레우(600km)로 버스로 이동하여 레안드로 목사 교회에서 2일 선교집회와 디나목회신학원 출신 목회자 5부부와 함께 퍼스펙티브스와 아르헨티나 선교협력기구(RMM)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퍼스펙티브스 세미나를 하게 될 네우겐(730km)으로 버스로 12시간 이동하여, "무슬림과 세계화"에 대한 세미나에 함께 참석하고, 퍼스펙티브스 강의를 14일(토) 마친 후, 15일 주일에는 Fures 목사가 사무하는 현지인 교회에서 대예배를 선교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버스로 파타고니아 지역을 약 1650km를 순방하면서 목회자 가정과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바릴로체까지 비행기로 가고 다시 네오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리까지 합치면 전체 약 4450km의 거리를 왕래한 셈입니다. 약 10일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방하고 또 교회들을 방문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일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현지인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방문한 목적은 현지



인 목회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문한 후의 저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계속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레안드로 목사 교회는 50여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한 가정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기 교회에서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 것이 기도제목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건물도 다 완공되지 않고 추운 겨울에 난방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

다. 수도권에 있는 "꼬무난델 엔꾸엔프로"교회(17주년)에서 10월 6일과 메르세데스(100km) 지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응답"교회(25주년)에서 10월 12-13일 교회 창립 기념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세계선교에 더욱 더 헌신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160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4개 지역(바릴로체, 엘바제-네우겐, 멘도사, 로사리오)의 퍼스펙티브스 월간 세미나와 약 40명이 등록하여 진행 중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간 세미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11월이면 종강을 하게 되는데 모든 학생들과 코디네이터, 스태프, 강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아르헨티나 대통령 1차 선거가 10월 27일에 있습니다. 지난 8월 예비선거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계속해서 불가인상과 불안정한 외환으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믿음으로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헌신이 식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 계시는 모친 신계련 권사가 밋길에 넘어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치골이 골절이 되어서 약 6-8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 다음 주 정도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큰 고통 없이 그리고 뼈가 잘 아물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와 온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르헨티나, 봄의 계절에... 박성흠-정명희(신애, 지애, 원진) 선교사 드림 carlospark@gmail.com

캐플린 임상목회 (33)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캐플린)

사회적 분열이 가져오는 집단적 정신장애

오늘도 끊임없이 실려 들어오는 교통사고 응급 중환자들로 인해 병원에서 내일 아침까지 긴 밤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음주나 대마초 같은 약을 하고 운전하다가 중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은 친구들이 많고 가족들이 겪는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벌써 두 명의 환자가 세상과 하직을 했습니다. 스포츠 게임에서 좋아하는 팀이 졌다고 기분 나빠서 과음한 채 운전하다 목숨을 잃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같은 술집에서 싸우다 욕설을 하고 먼저 차를 타고 달아난 사람을 난폭하게 추격하다 차량이 전복되고 두 사람 모두 다 중태인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이든 인종적이든 종교적 이유에서든 환자 개인을 만나보면 온순하고 사회규범에 잘 적응하며 순탄하게 살던 사람들이 사상과 종교, 지지하는 정치지도자나 소속 정당, 졸업한 학교에 대한 동문집단이나 SNS 상에서 조성된 집단의 일원이 되면 그 단체의 울타리 뒤에 숨어서 거의 폭력적이고 호전적인 언어를 사용하다가 급기야는 물리적인 폭력도 마다않는 분노조절 장애자가 되고 맙니다. 특히 젊은 20/30세대에서 이런 분노조절 장애증상이 급증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정신질환자들의 분출구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집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 프레임으로 쪼개져서 길거리 시위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와 고질적 검찰권력 남용에 대한 검찰개혁의 필요를 놓고 온 나라가 양분된 것 같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의 뿌리는 사회의 고질적 빈부격차와 그로 인한 기회박탈, 상대적 상실감과 절망감이 가져온 소위 흉수저 서민들의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고 봅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배신감이 증폭되었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행복추구의 기본적 인권마저 체계적으로 빼앗겼다는 분노의 감정이 마치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병리학적 현상은 개인의 정신병적 현상으로 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었지만, 집단 속에서 확산될 때는 마치 극도로 위험한 전염병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위험수위가 넘어서 뚝해서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페이스북에도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이 극명하게 나뉘어져서 분노와 증오심으로 언쟁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과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사랑과 화평의 영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peacemaker(평화파괴자)가 아닌 peacemaker(평화조성자)로 모범을 보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면서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새겨봅니다. Code Blue(사망위험환자) 방송.. 또한 분이 세상을 하직할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8).

tdspark@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h3>뉴욕몽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절회: 오후 09:00 세백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 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3>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세백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p> <p>Tel. (718) 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3>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3>뉴욕새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 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생명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백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Fax: 388),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센트럴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5:30(월-토)</p> <p>www.pcpcny.org, Tel. (516) 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백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3>리빙스톤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남성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3>빛과소금교회</h3>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후 1:50분 주일3부 오후 3:20분 세백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 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3>주비전교회</h3>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세백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종보기도: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1:00</p> <p>Tel. (718) 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ma Rd, Manhasset, NY 11030</p>	<h3>퀸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6:00</p> <p>Tel. (718) 886-4040, www.kapc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영어로 보는 성경 (39)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Haggai 2:6-8

6)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In a little while I will once more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sea and the dry land. 7) I will shake all nations, and what is desired by all nations will come, and I will fill this house with glory,' says the Lord Almighty. 8)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declares the Lord Almighty."

(NIV 2011)

WORD & IDIOM

* Almighty: 전능한 * in a little while: 잠시 후에 * once more: 한 번 더, 다시 한 번 * shake: 흔들다, 진동시키다 * what is desired: 소망이 되는 것 * all nations: 모든 민족 * declare: 선언하다 *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 glory: 영광 * mine: 나의 것(소유 대명사)

GRAMMAR

6)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In a little while 이것은 전능한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다 잠시 후에

I will once more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나는 ~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흔들다 하늘과 땅(을)

the sea and the dry land.

바다와 육지(를)

⇒ 이것은 전능한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다.

다. 잠시 후에 나는 다시 한 번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흔들 것이다. * <This is what ~>에서의 <This>는 (: 이하의 내용을 가리키며, <what ~>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한 것>이라는 뜻이다. cf. I understand what you said. = 나는 네가 말한 것을 이해한다.

7) I will shake all nations.

나는 모든 나라를 흔들 것이다.

and what is desired by all nations will come, 그리고 모든 민족에 의해 소망이 되는 것 이루어 질 것이다.

and I will fill this house with glory,' says the Lord Almighty. 그리고 나는 이 집(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 나는 모든 나라를 흔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는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 <What is desired by all nations>에서 <What is desired>은 <소원이 된 것>이라는 의미이며 그 소원이 <all nations>에 의한 것이라는 수동태 문장이다. 그러나 우리말의 경우는 서술내용 즉 동사를 중심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지나치게 영어식 표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What is desired by all nations>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모든 민족에 의해 소망이 되는 것>으로 번역이 되겠지만 <모든 민족의 소망> 또는 <모든 민족이 소망하는 것> 정도의 의역이 자연스럽다.

* <says the Lord Almighty> 인용문 다음의 문장은 어순을 도치시킨다. 아래 8)절 말씀 후반의 <declares the Lord Almighty>도 같은 이유로 도치되었다.

8)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그)은이 내 것이다 그리고 (그)금이 내 것이다

declares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주께서 선언하신다

⇒ '(그) 은이 내 것이며 (그) 금이 내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선언하신다.

STUDY & THOUGH

6절에서의 '잠시 후에...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은 구약사에 있어서 이전의 노아의 홍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인류의 구원의 성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 절에 이어 7절에서 예언되고 있다. 선지자 학계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는 약 520년간의 세월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잠시 후에' 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는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계21:1). 사라지고 말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자!

■ God ultimately owns all the wealth of nations.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왕상18:20-29)

엘리아는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우상숭배의 대표자들과 누구든지 번제단에 불이 임하면 참 신인 것을 증거하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아가 혼자인데도 여유가 있고 담대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상은 가장 중요한 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할 때는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선지자 때 이 몸을 상하며 하루 종일 날뛰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결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상은 가장 중요한 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할 때는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선지자 때 이 몸을 상하며 하루 종일 날뛰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결말입니다.

화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왕상18:30)

본문을 보면 엘리아 선지자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엘리아가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와 단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처음 은혜 받고 사람에게 감격하고 순수하게 살았던 때로 다시 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해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 하는 예배가 먼저 다시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수 무너진 여호와와 단을 수축하되(왕상18:30-31)

"수축하라"는 단어는 피엘 강조형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되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축하라"는 단어는 "예과파"로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것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을 계속 고치고 계속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가 다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 나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격해 전심으로 드러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치료되고 고쳐지고 하나님의 불은 임하실 것입니다.

목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에 따라(왕상18:31-32)

계속해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제단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야곱이 등장하고 있는데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강가에서 홀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야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수4장). 먼저 무너진 단을 수

축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시어 은혜와 복을 내리시면서 천성에게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는 제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늘 감격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져야 합니다.

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왕상18:33-35)

계속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일으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열두돌로 단을 쌓고 네 통의 물을 세 번이나 제단에 붓게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불을 붙인다고 불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에 불이 붙어서 번제물과 나무와

도랑을 태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포기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기적입니까?

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왕상18:36-40)

마지막으로 엘리아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와 불이 내렸습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통쾌하고 속이 시원한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엘리아는 짧은 기도지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응답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보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구 광운동 340-(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침례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076(교우관) VIA DEI QUINTI, 5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6부: 오후 7:00(매일)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3-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8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04-270)	승중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고동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inich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261-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시로3길 50-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9: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1842-6881, Fax: (02)18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인/터/뷰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석사과정 디렉터 가진수 교수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 기쁨으로 세상 살아가야”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가 한인신학교 최초로 예배학 석사과정(MA in Worship Studies)을 개설한다.



가진수 교수는 예배학석사 과정이 미국신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개설되고 자리잡아 왔었지만 한국 및 한인신학교에서는 전무한 실정이었다고 언급했다.

가진수 교수는 예배학석사 과정이 미국신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개설되고 자리잡아 왔었지만 한국 및 한인신학교에서는 전무한 실정이었다고 언급했다.

“아무래도 예배학에 대해 가르칠 사람이 한인 중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예배학에 대한 과정을 열지 못했었다고 보여집니다.”

가 교수는 예배학은 신학교에서 교과과정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며 그 이유는 교회의 노력화에 따른 쇠퇴기에 접어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사역을 30여 년간 해왔는데 교회현장에서의 경험은 한국교회의 연령대별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예상통합측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합측 교회의 7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고요.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이끌려 교회에 가지만 부모와 떨어져 있게 된다면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비율이 80%입니다. 그야말로 1세대 위주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가 교체가 될 때쯤이면 교회는 절벽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진수 교수는 다음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교회에 대한 매력을 찾지 못해서라고 말했다.

“자녀세대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마치 고대유적 같은 곳입니다. 컨셉이 70년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굳이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널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쁨인데 그것을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가진수 교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월드미션대학교의 예배학 석사과정 개설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본 과정을 통해 교회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1세대뿐만 아니라

가진수 교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월드미션대학교의 예배학 석사과정 개설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본 과정을 통해 교회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1세대뿐만 아니라

2020년 봄학기 시작 2년 과정 48학점 이수, 타미워커 등 강사 예배전문사역자 양성... 예배사역 지도력, 예배 기획 인도하도록

라고 언급했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한 기쁨이 힘이 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세대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이뤄지게 되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평생 삶이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하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깊이 있는 예배인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배학 석사과정의 최종목적은 예배전문사역자 즉 예배를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리더십을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이라며 그 목적에는 목회자 외에 청년 등 평신도도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

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며 말씀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배개혁은 영과 진리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함입니다. 영적인 부분과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고 있는지 가 관건입니다”

가진수 교수는 “예배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며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성장으로 이어지며 젊은이들이 계속 모이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야성 있는 사자 한마리가 천마리 양과 염소보다 낫다. 본 과정을 통해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다”며 “젊은이든 목회자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를 많이 배출되고, 예배 속에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게 되는 인도자가 되기 바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뤄지는 예배가 많이 생겨나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진수 교수는 인화대학교 영문과(BA), 그리스도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Th.M), 협

원로칼럼

완주자의 노래(하)



박중순 목사 (침례교회 원로)

정치가 꼬이고 계층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교회와 갈등과 분쟁의 흥역을 치르는 것도 따져보면 네 탓으로 떠넘기는 악성 바이러스 때문이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폭풍도 외면할 수 없다. 물론 원인과 단초를 제공한 것은 나와 우리라고 치자. 그러나 외풍이 너무 심하다. 마치 컨소시엄이라도 이런 것처럼 모든 매체와 단체들이 비난과 공격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방패도 없고 갑

옷도 없다. 이쯤에서 한국교회는 자중지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교회연합체의 균열도, 교회 내의 갈등도 끝점을 찍어야 한다. 더 이상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

바울은 다양한 사역자였다. 사도였고, 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선교사였다. 그리고 대설교가였고, 교회 개혁의 선구자였다. 바울 같은 철저한 복음의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필자의 이상이였다. 그러나 그가 겪었던 온갖 박해와 고난, 아픔과 가난은 싫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필자는 함람미달 목사였고, 빛다 만 그릇이였다.

바울의 위대함을 한두 가지로 적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학의 샘은 팔수록 깊었고, 신앙의 탑은 우러러보기 힘들 만큼 크고 높다. 그의 청빈은 너무나 맑고 깨끗해 흉내조차 힘들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그 한마디에 머리를 들 수 없다.

더더욱 감동적인 그의 행적은 마무리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4:7)라는 완주자의 노래, 멋진 마침표가 감동적이다.

싸움은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적과 싸워야 한다. 바울은 그 대상을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 악한 권세들과 악한 영들이라”했다(엡6:12). 우리는 싸움의 대상 설정에서부터 잘못을 저질렀다. 전우를 적으로, 형제를 원수고 여기고 싸웠다. 결핍하면 교파를 나누고 갈라서기를 되풀이 했다. 치졸한 싸움판에서 기선을 잡았노라며 개선의 노래를 불렀고 지금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느라 믿음은 송두리째 저버리고 혈과 육을 동원해 싸움판을 벌이곤 했다. 일평생 걸어온 목양길의 동기와 과정이 믿음이었나를 돌이켜 보면 부끄럽고 송구하다. 하나님의 목회하면서 잔머리 굴린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바울의 고백은 목회를 내려놓은 지금도 태산처럼 다가온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도 떠오른다(요19:30).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어야 한다고 임버릇처럼 되풀이 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었다는 자괴감으로 괴롭다. 앞에서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가” 할 만큼 했는가?라는 물음엔 입을 열 수가 없다.

동역자들에게 권하고픈 말이 있다. 그것은 목회에 마침표를 찍는 날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자는 것이다. 목회뿐이겠는가? 인생도 그렇다. 언젠가 우리는 인생 삶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때가 언제 인가는 보내시고 부르시는 주님만 아신다. 지금 누리는 그 자리, 머무는 그것, 움켜쥔 그것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설교한다. 그러나 목사에게 욕심을 버리라, 내려놓으라, 낮추라고 설교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비행기는 엄청난 양의 화물과 사람을 싣고 장시간 하늘을 난다. 그러기 위해 최첨단의 기법과 강한 소재를 개발해 동체를 만든다. 그리고 거추장스런 인테리어나 장식을 피한다. 코끼리가 하늘을 나는 비결은 체중을 1만분의 1로 줄이는 것이다. 과체중, 과부하, 피할 것들이다. 들림 받는 그날, 바울처럼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빈손으로 주님의 그 큰 손을 덥석 붙잡고 싶다.

jj46923@gmail.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